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청소년 독서 자료의 문제와 방향

지도교수 고 순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 8.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 혜 경

김혜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6월 30일

주 심 문학박사 김 쾌 덕



위 원 문학박사 박 영 준



위 원 문학박사 고 순 희



목 차

* 논문 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5
3.	연구 방법론	9
1)	연구 절차	9
2)	연구 과제	10
II.	이론적 배경	12
1.	청소년과 독서	12
1)	청소년기의 특징	12
2)	독서 흥미의 발달 단계	14
3)	청소년기 독서의 필요성	16
2.	독서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독서 실태	17
1)	독서 환경의 변화	17
2)	청소년 독서의 실태	19
III.	청소년 독서 자료의 현황 및 설문 분석	22
1.	청소년 독서 자료의 현황	22
1)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 목록	22
2)	전체 자료의 분야별 현황	25

2. 설문지 구성 방법	26
1) 조사 대상자	27
2) 자료의 선정	28
3) 설문 구성	30
3. 설문 분석	31
1)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	31
2) 청소년 독서 자료의 적절성	39
3) 청소년의 도서 및 장르 선호도	47
 IV.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의 방향	62
1. 청소년 독서 자료의 문제점	62
2. 청소년의 독서 자료에 관한 욕구	64
3.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 기준의 설정과 방향	69
1) 독서 자료 선정 기준의 설정과 방향	70
2) 독서 자료 선정의 실례	79
 V. 결 론	87

* 참고문헌

* 부록

표 목 차

<표 II-1> 청소년 일반도서 열독시간과 공부 접촉시간 비교	18
<표 II-2> 한 학기 독서량	19
<표 II-3> 청소년의 여가 활용 실태	20
<표 III-1> 선정 기관별 청소년 독서 자료 현황	23
<표 III-2> 전체 자료의 내용별 분류 현황	26
<표 III-3> 대표 자료 목록	29
<표 III-4> 청소년의 1학기 교양도서 독서량	32
<표 III-5> 독서에 대한 흥미도	34
<표 III-6> 독서의 목적	35
<표 III-7>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견해	36
<표 III-8>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	37
<표 III-9> 독서 태도	39
<표 III-10> 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인지도	40
<표 III-11> 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독서 수행 정도	41
<표 III-12> 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분야별 독서 수행 정도	42
<표 III-13> 청소년의 독서 수행 정도	43
<표 III-14> 청소년이 독서에서 흥미나 감동을 느끼는 요소	44
<표 III-15> 청소년의 독서과정에서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	45
<표 III-16> 청소년의 최근 선호도서와 2002 독서 자료 중복 현황	47
<표 III-17> 청소년의 도서 선택 정보원	48
<표 III-18> 학교나 교사가 도서를 추천하는 회수	50
<표 III-19> 부모·형제가 도서를 추천하는 빈도	51
<표 III-20> 청소년이 선호하는 도서 분야 (연령별)	53
<표 III-21> 청소년이 선호하는 도서 분야 (성별)	55
<표 III-22> 도서 선호도 (연령별)	58
<표 III-23> 도서 선호도 (성별)	60
<표 IV-1> 청소년이 추천하는 청소년 독서 자료	80
<표 IV-2>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의 예	81

The question and effective method of reading materials for the adolesc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Hae Kyung Kim

Directed by Professor Soon Hee Ko

The young grow up to recognize individuals and the society deeply and widely at the high speed through the adolescent period.

As they cultivate their emotions and broaden their thoughts and knowledges through reading, they build up their characters on the basis of reading. Therefore, during the adolescent period, they are influenced by reading and frame their lives through reading.

But these days, to select reading materials is not easy, for there are so many books flooding in. To do so, correct information is needed for reading materials.

That's why each organization selects the recommendatory reading materials and promotes the adolescent to read them. But most of the information about them is not properly given to the adolescent. Consequently, the recommendatory reading materials are actually turned away by the adolescent.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not onl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commendatory reading materials as the present reading materials for the adolescent but also their acknowledgment of and response to them.

And this study sets up a purpose to find out a way of selecting the proper reading materials which interest the adolescent, arose their sympathy, and help them to build up their characters.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students at the period of adolesce. The basic process of the study used direct inquiries by questionnaires and the existing research data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It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adolescent's reading and their recognition and interesting sections of reading.

On the second chapter, there w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 their relationship with reading and the changing situations of the reading environment studied.

On the third chapter, the data from the questionnaires about the reading materials for the adolescent were analyzed and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reading materials centering around the data of the inquiries were examined.

On the fourth chapter, the standards and direction of the reading materials for the adolescent were set up, which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inquiries, reflected the interests of the adolescent. And the adolescent could achieve the educational objects of forming their characters and giving them a variety of living experiences through reading. There were four branches of their standards and direction by the forms, by the development of interests about reading, by the contents and by th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Finally, the reading materials for the adolescent were recommended and presente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책 한 권의 선택이 사람의 생각이나 직업, 인생을 바꿔 놓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스토크 부인이 쓴 「영클 톰스 케빈」을 읽고 느끼는 바가 커서 노예 해방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나, 쉘리만이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다 준 「어린이를 위한 역사」라는 동화책을 읽고 ‘트로이 유적’을 발견한 고고학자로 이름을 떨친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독서는 심성을 계발하여 감정이나 사상의 성숙을 지향하면서, 질서와 조화 의식을 기르는 교양의 한 수단이 되고 있다. 노명완(1998:8~9)에 따르면, 책은 사상과 감정 즉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록된 정보의 회상이다. 또한, 더 나아가 기록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창조하는 지적 작용이다. 이 두 가지 즉 정보의 보존과 회상,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구성과 창조를 위한 사고가 바로 독서라고 한다.

책을 읽음으로써 의미의 구성과 창조를 위한 사고를 하게 되고 이러한 사고는 바로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서와 독서 교육은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관심 사항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독서를 통하여 더욱 인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 독서를 함으로써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사 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등을 비롯한 고도의 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생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고 역사를 통하여 쌓아온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 특히,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독서는 정서를 함양하고 생각과 지식을 넓혀주어 인격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입장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인생 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겠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영숙(1998:2)에 의하면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시청각적 자극에 익숙해진 청소년은 문자 부호보다 영상이나 음향 부호에 친숙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논리성과 사고력의 부족, 종합력의 빈곤, 문자의 이탈 현상, 나약한 정신력과 인내심 결여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부작용, 역기능을 보완하고 기억력, 상상력,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분석력, 사고력을 계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독서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독서 부재 현상을 극복하고 독서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습관을 우선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책 읽기를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독서와 독서 교육에 대한 탐구 과제 중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독서 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한철우·박진용(1998:126~127)은 독서 자료로부터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독서라고 할 때, 독자가 효율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서 자료가 독자의 능력과 수준에 적절하여야 한다. 만약 독자가 독서 자료로부터 의미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독서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및 독서 교육은 우선적으로, 청소년 독자에게 필요하고도 적절한 독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에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고 한다.

즉,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사고력과 창조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독서 자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 신체적·심리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느낌에 자신의 판단을 맡기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독서 자료들만을 선호하면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요소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책을 선택하여 흥미를 갖고 읽음으로써 미지의 세계를 터득해 가는 데 기쁨을 느끼고 끝까지 읽은 뒤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만끽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옛날에는 책이 귀해서 선택의 여지가 크게 없었으나 오늘날 산업화와 더불어 출판업의 발달로 쏟아져 나오는 책의 홍수 속에서 책의 선택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준에 알맞은 책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체들은 독서 자료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 자료에 관한 정보들은 청소년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추천되는 도서들은 대부분 어른들의 시각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도서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해 선정되고 추천되는 독서 자료들이 실제로 청소년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독서 자료의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선택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러한 독서 자료에 대한 흥미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독서 자료는 교육성과 예술성이 있는 양서를 선택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교육성과 예술성만으로 독서의욕을 높일 수는 없다. 그 외에도 그들의 의식 수준에 적합하면서 흥미를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천된 독서 자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청소년이 모르고 있다면 이는 명목뿐인 독서 자료인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추천되고 있는 독서 자료는 지나치게 교육성과 예술성만을 그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존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가진 오늘날의 신세대가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교육성과 예술성을 지니는 알맞은 도서를 선택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독서의 생활화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저절로 조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독서 자료를 추천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소년 권장 도서로 추천되고 있는 독서 자료에 대한 현황 및 청소년의 인지도와 호응도를 분석하고, 청소년에게 공감과 흥미를 줄 수 있으면서, 올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고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절차로서 I 장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연구의 절차 및 과제를 살펴보고, II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청소년기의 특징 및 청소년과 독서와의 관계와 독서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독서 실태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III 장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 자료에 관한 설문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함과 동시에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독서 자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본다.

IV 장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의 방향에서는 청소년 독서 자료로서 기존

독서 자료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흥미를 반영하면서도 인격 형성과 다양한 삶의 경험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기 위한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의 기준과 독서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추천할 독서 자료를 선정하여 그 실효성으로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제시되는 독서 자료는 하나의 예로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나 청소년의 흥미와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교육적인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도서들을 선정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 목록을 선정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청소년의 독서 전반에 관한 논고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독서 자료의 선정이나 추천된 독서 자료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므로 독서 교육 전반에 걸친 논의 중에서 적합한 최근의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병길(1990)은 중·고등학생들의 독서 실태 분석을 통해 독서 지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독서 환경, 독서 흥미도, 독서 활동, 독서 경험, 독서 지도 실태 등을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정상에서의 중·고등학생 독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엄화자(1994)는 생활에 보편화된 독서가 초·중·고교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기본적 목적 아래 초·중·고교생들의 독서 실태 및 독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독서태도에 따른 그들의 가치성향 및 행동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즉, 초·중·고교생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데 독서가 가장 강력한 문화적 무기임을 착안하여

초·중·고교생들의 독서태도와 가치의식의 측면을 분석하였다.

김형경(1998)은 원론적 관점에서 도서 선정 기준을 독자의 내적 요인과 독자의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독서 목적, 흥미, 태도, 일반 지능, 언어 능력, 독해 기능, 신체 및 생리적 조건이라는 내적 변인과 주제, 소재와 구성, 주인공과 등장 인물, 배경, 결말, 어휘의 난이도, 번역 등의 외적 변인으로 나누어 추출하고 초등학교 4학년 독서 자료 선정에 적용해 보고 있다.

독자의 외적 요인으로는 글의 내용과 글의 형식, 글과 책의 외형면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글의 내용은 주제, 소재와 구성, 등장 인물, 배경과 결말 처리 방식, 난이도 등의 문제이다. 글의 형식은 행과 문장의 길이, 문장의 짜임새와 단락 등을 말한다. 그리고 글과 책의 외형은 글자 모양과 크기, 인쇄 상태 색채와 삽화, 책의 크기, 쪽수, 제본과 종이의 질에 관련된 사항이다.

정진화(2000)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의 사회적 수용에 따라 청소년의 독서 행태가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독서량, 독서시간, 독서태도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영상세대¹⁾의 특징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독서량, 독서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독서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독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영상세대로서의 청소년에게 적합한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신헌재 외(2000)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독서 자료 선정 기준에 대

1) 태어나면서부터 동적이고 화려한 원색의 텔레비전 화면을 접하고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 말로 신문이나 잡지의 문자를 읽으며 성장한 ‘문자세대’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이들은 영상과 게임을 요람에서 즐긴다는 점에서 영상문화를 대표하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 보급이 일반화 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세대들을 일반적으로 영상세대라 칭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칼라 텔레비전 보급이 대중화되고 각종 영상매체가 급속히 발전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에게서 영상세대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여 논의한 것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작품 선정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 3가지 측면, 즉 자료 자체의 측면과 자료 수용의 측면, 저자, 출판 관련사항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유현상(1999)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독서 자료의 제시가 바람직한 독서 교육의 대전제라는 가정 아래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서 선정원리를 마련하고, 기존 독서 자료의 선정 운영 상황을 분석, 문제점을 추출하여, 국어과 교육과정과 독서 사이의 관계를 살펴 초등학교의 학년별 도서 선정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년별 독서 자료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강향옥(2001)에서는 독서 자료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수준에 맞는 독서 자료를 선정하여 봄으로써 최적의 독서 자료 선정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서 자료들을 선정함에 있어 7차 교육 과정 및 교과와 연계된 독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분석하여 단위별로 관련도서를 추출하여 학년별, 단계별 독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박병길(1990)의 중·고등학생의 독서 실태조사, 엄화자(1994)의 초·중·고교생의 독서 태도를 비교 분석한 점 등은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독서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볼 때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본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참고하였다. 그러나 2편 모두 199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연구 조사된 내용이므로 2000년대에 들어선 현재와는 그 실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경(1998)의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소개된 내용을 재정리한 원론적 내용이지만 실제적 적용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위한 독서 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에서 내용이나 형식, 외형적 측면에 의한 기준을 설정

하는 데 있어 그 바탕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정진화(2000)의 연구는 독서부재시대의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파악에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오늘날 청소년의 독서량이 줄어들고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 연구의 분석 방향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청소년을 독서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덧붙여 청소년의 독서량을 늘리고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신헌재 외(2000)의 독서 자료 선정 기준에 대한 분류와 논의는 기존의 개괄적이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독서 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본고의 독서 자료 선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향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유현상(1999)과 강향옥(2001)의 연구에서는 도서 선정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학습 능력 신장과 인성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논문의 주제와도 상당히 근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교과에 지나치게 얽매인 선정기준과 선정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내용과는 시각적 차이가 있다. 초등학생과는 달리 청소년은 발달적 특징상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독서에서 채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개된 선행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독서의 특징과 독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독서

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독서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론

1) 연구 절차

기존 세대와는 달리 새로운 계층인 청소년은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분야에는 몰두하나 흥미 없는 분야에는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즉, 청소년은 아무리 교육적으로 훌륭한 도서일지라도 자신들의 흥미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흥미도를 파악하고자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독서 관련 조사 자료를²⁾ 토대로 청소년 독서 및 독서 자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면서, 독서 교육의 목적에 알맞은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을 위한 방향을 탐구하고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절차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나 연구 분석 대상 자료는 현재 정기적·지속적으로 청소년 독서 자료를 추천하는 기관³⁾들이 2002년도에 선정 발표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통계청, 2000년 사회·문화통계조사 결과.

문화관광부(2002나),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한국출판연구소(1997),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등.

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관광부,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 등.

각 기관들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 독서 자료 848종 중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면 총 593종이다. 이 자료들을 모두 설문에 이용하면 더욱 정확한 조사가 되겠지만, 전체 자료로 설문지를 구성하기에는 자료의 양이 너무 많으므로 그 중 3번 이상 중복 추천되는 69권의 도서를 선별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하고 분석의 대표 자료로 삼는다.⁴⁾

다음으로 설문 조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6개 학교를 선정하여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200명 총 400여명(남학생 200명, 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 수준, 학생들의 청소년 독서 자료 목록의 활용 정도와 자료별 인지도 및 자료로서의 적절성,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고 선호하는 도서의 분야를 묻는 3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2) 연구 과제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흥미도를 파악하고 방대한 양으로 쏟아지는 독서 자료들 중에서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알맞고, 교육적인 도서이면서 청소년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독서 자료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의 현황은 어떠한가?
- (2) 오늘날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3)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의 활용 실태 및 청소년 독서 자료로서의 적절성은 어느 정도인가?

4) 대표 자료 목록 : <표 III-1>참고.

(4) 청소년은 어떠한 독서 자료에 흥미를 가지고 공감을 느끼는가?

(5) 청소년 독서 자료의 선정 기준과 독서 활성화 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독서

1)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을 나타내는 ‘adolescence’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adolescence’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은 ‘성숙되어 가는 것(to grow into maturity)’이다. 이는 청소년을 어떤 한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청소년 도서관협회는 아동은 아니고 또 아직 성인이 안 된 젊은이에 대해 ‘청소년(young adult)’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다. (Mclook & O’Rolstad, 1993:48)⁵⁾

청소년기는 명확하게 그 연령층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7:9)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초경 등 성 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하여 추상적 사고 능력과 자아 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19세 경까지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비교적 연령 범위가 명확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발달한 신체 및 운동 능력, 성적 발달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빠른 신체적 발달은 새로운

5) 박온자(1996:242)에서 재인용.

자아 정체성(self identification)을 형성하게 하며,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존재와 추구해 나갈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정체감 획득이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하면 역할 혼미에 빠지게 되므로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로는 하비거스트(Havighurst)의 ‘발달과업’과 에릭슨(Erikson)의 ‘인성발달이론’을 들 수 있다.

인간은 각 발달 단계에서 그 단계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⁶⁾을 가지고 있다. 하비거스트(Havighurst)는 인간의 전 생애를 연령에 따라 6단계로 나누고 각 연령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을 제시하면서, 청소년기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development task)’으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⁷⁾

- ①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롭고 보다 성숙한 관계 맺기
- ② 사회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수긍할만한 역할 분담의 수용
- ③ 자기의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고 그 신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일
- ④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일
- ⑤ 결혼과 가정 생활을 준비하는 일
- ⑥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일
- ⑦ 각자의 이상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
- ⑧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는 일

청소년기의 정의적 특성을 밝힌 에릭슨(Erikson)의 ‘인성 발달 이론’에서는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8단계로 나누면서 각 단계마다 겪는 심

6) 발달과업이란 개인이 그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기술, 지식, 기능, 태도 등의 인지적·정의적 요인을 말한다.

7) 박은자(1996:242~247)에서 재인용.

리·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인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에릭슨(Erikson)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아의 정체감(identity)이 형성되거나 정체감의 혼미가 형성되는 시기이다.⁸⁾

청소년이 건전하고 성숙된 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존재와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 결과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거나 정체감 혼미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독서는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사색의 기회를 통하여 신중함과 사고력을 길러 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여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며, 이는 결국 바람직한 정체감 형성과, 인격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른 독서 자료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자아 정체감 확립을 돕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2) 독서 흥미의 발달 단계

발달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전 생애를 몇 개의 발달 단계로 구분 짓고 있는데, 독서 흥미나 독서 능력도 마찬가지로 본다. 독서 흥미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기의 독서 흥미 발달 단계에는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손정표(1998)는 독서의 흥미는 생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립되며 그 내용도 변화해 나간다고 보았다. 독서 흥미의 발달은 성장 과정에

8)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7:79)에서 재인용.

맞추어 단계별로 옛날 이야기기(4~6세), 우화기(7~8세), 동화기(8~10세), 이야기기(10~12세), 전기기(12~14세), 문학기(14~), 사색기(17~)로 나누고 있다.

김효정 등(1997)은 성장 과정에 맞추어 독서 흥미 발달 단계를 초현실적 반복 이야기기(2~6세), 옛날 이야기기(4~6세), 우화기(6~8세), 동화기(8~9세), 이야기기(10~12세), 전기기(12~14세), 문학기(14~), 사색기(17~) 등 8단계로 나눈다.

교육부(1999)의 ‘초·중등학교의 독서 자료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개발 연구’에서는 도서 목록을 성장 단계별로 위계화 하는 작업과 연계하여 독서 흥미의 특징을 밝히면서 옛날 이야기 단계(4~6세), 우화 단계(6~8세), 동화 단계(8~10세), 이야기 단계(10~12세), 전기 단계(12~14세), 문학 단계(14세~), 사색의 단계(17세~) 등으로 나누고 있다.

성장 과정에 따른 독서 흥미 발달 단계 구분에 관한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기는 ‘문학기’와 ‘사색기’에 속하는 시기이다. 이시기의 특징상 추리력이 발달되고, 지식에 대한 욕구와 지식의 흡수 용량이 극히 성장하며, 어떤 종류의 과학이나 기술에 흥미를 갖고, 호기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문학기’에는 사회적 관심이 점점 강해지고, 현실 사회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비판적·반항적 태도를 가지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내면적 경향이 강해지고, 자아의 내면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대로 방치하면 돌파구로서 자극을 찾고 만족하는 경향으로 흐르기 쉬운 위험한 시기이다. 따라서, 독서 자료로는 스틸이나 액션 작품 등보다는 내면 생활의 저항을 그린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독서 자료로는 감상 소설이나 전기류나 역사 이야기, 온화한 분위기의 연애 소설 등의 통속문학, 그리고 주로 내면의 심리적 갈등을 다룬 시·소설 등의 순문학 등이 적당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사색기’에는 감정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인 지성에 입각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철학적·사색적인 입장에서 원리를 찾고자 하고, 비판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나간다. 그리고 정신적 안락을 구하기 위하여 종교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장래의 진로 결정을 위한 전문 분야 서적을 읽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독서 자료로는 통속 문학, 이념적 배경을 가진 순문학, 사색적인 내용의 책(수필·인생이나 행복, 우정 등 생활 철학·사상서 등), 종교 관련 도서 등이 적당한 시기라 할 수 있다.

3) 청소년기 독서의 필요성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청소년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청소년의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독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자아 정체감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이 스스로 도서를 선택하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나 인격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독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한 이를 읽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이 바로 독서 교육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정옥련(1998:188)에서는 독서는 청소년 지도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하나는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청소년이 당면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지적인 대응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 줄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을 독서를 통해서 통찰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태도나 성격에서의 변화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기의 독서는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력을 발달시키며,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어 창조적인 능력을 발전시킨다. 또한, 바람직한 행동과 건 강한 성격,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독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외에 인생의 간접경험을 통하여 폭넓은 인생관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상상력을 비롯해서 논리적 사고력, 판단력, 구조화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의 고등정신 능력을 신장시키고, 그 외에 문학적 독서와 오락적 독서는 아름답고 착한 마음씨로 정서순화를 하게 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시킨다. 독서 그 자체가 인간·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지도하는 목적 역시 멀티미디어에 길들여져 약화되어 가는 사고력을 되찾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고등정신 능력을 신장시키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독서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독서 실태

1) 독서 환경의 변화

오늘날 첨단 기술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의 감소를 가져와 사람들의 여가시간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텔레비전, 컴퓨터, 영화, 라디오, 비디오 등에 할애하고 있다. 정진화(2000:14)에 의하면 이러한 여가 형태는 독서력과 독서시간의 잠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독서 부재 현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문화관광부가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96년 96.7%였던 한 학기 독서 인구 비율이 1999년 93.9%, 2002년 89.6%로 감소되고 있다.

한 학기 독서량은 지난 1999년 조사에서 중학생 9.6권, 고등학생 7.1권인데 비해, 2002년 조사에는 중학생 7.6권 고등학생 6.6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 활용 형태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1위를 차지하고, 컴퓨터 게임 2위, 인터넷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서 비중은 이보다 못 미치는 5~6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만화책 읽기가 5위 교양 독서 6위라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학생들의 독서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대에는 전반적으로 교양 독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책읽기가 가능한 절대시간의 상당 부분을 과외·학원 학습에 투입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입증된다.

<표 II-1> 청소년 일반도서 열독시간과 공부 접촉시간 비교

(단위 : 분)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독서	공부/숙제	학원/과외	독서	공부/숙제	학원/과외
평일 평균	38	59	111	43	87	48
주말 평균	47	57	32	44	65	28
계(평균)	85	116	143	87	152	76

<표 II-1>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일반도서 열독 시간은 평일 평균과 주말 평균을 합쳐 중학생 85분, 고등학생 87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부/숙제·학원/과외 접촉시간은 주말 평균과 평일 평균을 합쳐 중학생 259분, 고등학생 228분으로 교양도서의 독서 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⁹⁾

그러나 문학, 전기, 역사, 윤리, 철학, 예술 등의 영역이 주를 이루는 교

9) 문화관광부(2002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 : 문화관광부가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하여 2002년 11월까지 조사를 마감한 국민독서실태조사 자료.

양 독서의 영역이야말로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 육성과 인격 형성, 논리력, 사고력, 창조력을 길러 주는 활동영역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독서 능력 자체는 고도의 지적·논리적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독서 환경의 조성은 중요하며, 여기에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독서 자료와 정보를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청소년 독서의 실태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는 산업사회는 자극적이고 즉시적인 시청각 매체들을 발달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성향들은 ‘독서’를 통해 극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독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와 한국출판연구소의 1997년도 청소년의 독서 실태 현황을 정리하면 <표 II-2> <표 II-3>과 같다.

<표 II-2> 한 학기 독서량

(단위 : 명, 권, %)

구 분	1997년도			2002년도			
	전체	청소년	아동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례수(명)	600	300	300	3,000	1,000	1,000	1,000
없다(%)	3.7	7.3	0.0	10.4	4.5	10.9	15.9
1~2권	10.3	17.0	3.7	20.7	9.5	24.4	28.2
3~4권	12.2	19.0	5.3	16.2	10.6	19.1	18.8
5~10권	28.0	31.0	25.0	24.6	21.5	29.2	23.0
11~20권	16.0	11.7	20.3	13.1	22.1	9.2	8.0
21~50권	18.8	8.3	29.3	11.3	22.9	6.3	4.6
50권이상	11.0	5.7	16.3	3.8	8.9	0.9	1.5
평균권수(권)	21.2	13.0	29.3	11.6	20.5	7.6	6.6

<표 II-3> 청소년의 여가 활용 실태

(단위 : %)

구 분	1997	2002
사례수(명)	300	2,000
책을 읽는다	6.0	6.6
신문/잡지를 읽는다	3.6	2.0
만화를 본다	6.4	7.0
텔레비전을 본다	22.4	16.0
비디오를 본다	3.0	1.2
영화관에 간다	0.9	2.6
CA텔레비전을 본다	2.6	2.0
비디오를 본다	0.1	0.1
음악을 듣는다	9.6	7.6
친구들과 놀기	7.4	1.7
PC통신/인터넷	1.7	15.4
컴퓨터게임	6.3	10.2
전자오락	2.0	1.3

첫째, 한 학기 동안의 독서율을 조사한 결과 2002년도에 중학생은 89.1%, 고등학생은 85.1%가 한 학기 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으나 초등학생은 95.5%가 한 학기 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독서율¹⁰⁾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2002년도 한 학기 독서량은 평균 7.1권으로 중학생이 평균 7.6권, 고등학생이 평균 6.6권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초등학생은 20.5권으로 나타나 역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독서량이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교 공부의 부담이 커질수록 공부와 독서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셋째, 1997년도와 비교해 볼 때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독서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10) 한 학기 동안 1권의 책이라도 읽은 사람은 독서 인구로 계산하여 독서율에 포함시킨 자료이다.

독서보다는 다른 여가 생활에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넷째, <표 II-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자료에서 청소년의 여가 시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 시청’(16%)이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15.4%)’, ‘컴퓨터 게임’(10.2%), ‘음악 듣기’(7.6%), ‘만화책 보기’(7.0%), ‘책읽기’(6.6%) 등으로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1997년도에 비하여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독서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텔레비전 시청’이나 ‘인터넷’, ‘컴퓨터 게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독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서량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소년의 독서량은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더라도 오늘날의 청소년은 독서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고력이나 상상력, 어휘력, 이해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결코 교육성이 떨어지지 않는 독서 자료의 선정과 사회 전체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청소년 독서 자료의 현황 및 설문 분석

1. 청소년 독서 자료의 현황

1)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 목록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독자에게 알맞은 독서 자료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독서 자료의 체계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서 자료의 선정 작업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독서 자료 목록이 많지 않으며, 그것도 일회적인 선정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최근까지 비교적 지속적으로 청소년 독서 자료를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관광부, 어린이도서연구회와 시립도서관 등을 들 수 있다.

기관별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서평 위원, 윤리 위원과 출판사 등이 추천한 도서와 일간신문, 출판 관련지 등의 독서 정보란에 소개된 도서를 대상으로 분기별 약40종 (3월, 6월, 9월, 12월), 연간 160종 내외를 '청소년 독서 자료'로 선정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도서로서 청소년 도서 선정 신청 도서 중 연간 60종 내외를 '이 달의 청소년 도서'로 선정해 왔다.

문화관광부는 매 1년 사이에 발행된 신간 도서 중에서 출판사가 추천도서 선정 신청을 한 도서 중에서 '추천도서'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청소년' 분야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표 III-1> 선정 기관별 청소년 독서 자료 현황

구 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대한출판 문화협회	문화관광부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 연구회
자료 명칭	청소년 독서 자료	이 달의 청소년 도서	추천 도서	청소년을 위한 좋은책	청소년 독서 자료	독서 자료목록
선정 목적	청소년의 지식과 교양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도모함.	청소년 정서와 건전한 가치관 도모 및 청소년용 양서 출판 의욕 고취.	출판사의 양서 출판 의욕 고취와 범국민 독서 생활화 촉진.	청소년의 지식과 정서 함양 및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도모.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고, 올바른 삶 조성.
대상 도서	· 서평 위원, 윤리 위원, 출판사 등이 추천한 도서 · 일간 신문, 출판 관련지 독서 정보란 소개도서 등	최근 1년 이내 발행된 도서로서 청소년 도서 선정 신청 도서	매 1년 사이에 발행된 도서 중 출판사의 추천 도서 선정 신청 도서	· 각 기관의 추천 도서 목록 · 전체 도서 자료		·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그동안 권했던 책 · 최근의 신간 서적
선정 분야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사회, 과학, 정치, 경제, 경영, 교양, 종교, 아동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사회과학, 기술과학, 순수과학, 어학, 종교, 아동	종류/어학, 종교/철학, 문학, 예술, 문화일반/문화재, 아동/청소년/만 화, 사회과학, 과학기술, 역사, 번역	과학/환경, 교양, 문학, 역사/인물		우리창작, 외국창작, 시, 과학·환경, 역사·인물, 기타
2002년 선정 자료수	160종	58종	101종	203종	188종	138종
중복추천 (3회 이상: 대표 자료)	14종 (8.75%)	1종 (1.72%)	5종 (4.95%)	59종 (29.06%)	68종 (36.17%)	56종 (40.58%)
2002 청소년 독서 자료수(전체)		593종 (총 848종 중 중복된 자료 255종 제외)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4월 도서관 주간에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목록
과 9월 독서의 달 ‘청소년 독서 자료’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로 매년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년 도서 목록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시립도서관의 추천 도서 자료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 자료에 대한 정보이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는 어린이 교육을 위한 시민단체로서 어린이 책 연구·비평을 바탕으로 유아에서부터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출간된 도서 자료들을 뽑아 1년에 1번 도서 자료목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청소년용 추천도서로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용 도서 자료를 구분하여 도서 목록을 추천하고 있다.

<표 III-1>에서 각 기관이 2002년도에 추천한 도서 자료는 총 848종이며, 그 중 3회 이상 중복 추천 된 자료를 대표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 일치도를 볼 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전체 선정자료 160종 중 14종인 8.75%만이 대표 자료로 나타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경우는 전체 선정자료 58종 중 1종인 1.72%만이 대표 자료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도 전체 선정 자료 101종 중 5종인 4.95%만이 대표 자료로 나타난다. 문화관광부의 경우에는 따로 청소년 도서 자료를 선정하지 않고 도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이므로 일치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를 제외하더라도 역시 청소년 도서 자료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낮은 일치도이다. 이는 객관성을 얻기 어려운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청소년 도서 자료를 선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는 기관은 시립도서관과 어린이 도서 연구회의 자료이다. 시립도서관의 경우 5월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선정 목록 203종 중 59종인 29.06%가, 9월 독서의 달 청소년 도서 자료 188종 중

68종인 36.17%가 대표 자료와 일치하고 있다.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타 기관들의 선정목록들을 그 자료의 일부로 삼고 있으므로 일치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는 독서 자료 목록 총 138종 중 56종인 40.58%가 대표 자료와 일치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신간 서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신간 서적 이외에 그간 다루었던 서적들도 독서 자료 선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자료로 삼았던 기존 독서 자료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관광부’의 자료만으로는 그 중복의 일치도가 너무나 낮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더욱이 이 세 기관의 선정자료 중 2기관 이상만 일치하는 자료 수를 대조해 보아도 16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시립도서관’ 자료와 ‘어린이도서연구회’ 자료까지 덧붙여 일치하는 독서 자료를 선택하여 설문조사의 대표 자료로 구성하였다.

2) 전체 자료의 분야별 현황

현행 청소년 독서 자료의 내용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를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여 그 내용을 <표 III-2>에서 살펴보았다.¹¹⁾ 전체 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문학이므로 청소년 독서 자료의 문학 의존도를 살피기 위해 문학 분야와 비문학 분야로 분류

11) <표 III-1>의 선정 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2개 분야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0개 분야, 문화관광부는 11개 분야, 시립도서관은 4개 분야, 어린이도서연구회는 8개 분야로 내용을 나누어 선정하고 있다. 여러 기관들의 선정 분야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표준화 된 기준이라 보고 내용을 분류하였으며, 그 분류는 시립도서관 도서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여 보자.

<표 III-2> 전체 자료의 내용별 분류 현황

분야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계
종수(권)	10	45	12	71	53	19	53	7	244	79	593
비율(%)	1.69	7.59	2.02	11.97	8.94	3.20	8.94	1.18	41.15	13.32	100

문학 분야는 244종으로 41.15% 차지하고 있으며, 비문학 분야가 349종으로 58.85%를 차지하고 있다. 비문학 분야로 역사 13.32%(79종), 사회과학 11.97%(71종), 순수과학 8.94%(53종), 예술 8.94%(53종)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체 자료 중 거의 절반 수준을 문학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뒤에 논의되겠지만 학생들의 흥미 분야가 만화를 제외하면 소설류가 가장 많으며, 실제로 추천된 자료 중에서 대표 자료의 활용도나 청소년이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을 조사한 문항에서도 문학 분야의 독서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독자의 흥미를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역시 문학 분야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2. 설문지 구성 방법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독서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독서력의 저하를 가져왔다. 기존 세대와는 달리 새로운 계층인 청소년은 흥미를 가지는 분야가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 또한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분야에는 몰두하나 흥미 없는 분야에는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경근(1995:221~224)에 의하면 신세대라고 하는 현대 청소년의 커다란

특징이 ‘남들이 안 하더라도 내가 좋으면 한다.’ ‘우리보다는 내가 우선이다.’ ‘유익한 일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하기 싫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세대처럼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도리’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논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즉, 청소년은 아무리 교육적으로 훌륭한 도서일지라도 자신들의 흥미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흥미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독서 교육을 하고자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설문 조사를 시도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독서 관련 조사 자료를¹²⁾ 연구 자료로 삼는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흥미도 및 흥미 분야를 분석하고, 현행 청소년 독서 자료의 인지도와 적절성을 밝힌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독서 관련 조사 자료와의 대비를 통하여 청소년 독서 및 독서 자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의견이나 흥미를 반영함과 동시에 독서 교육의 목적에 알맞은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한국의中等 교육과정에 준한 만13~18세 정도의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02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1주일간 부산지역에 소재 하는 중·고등학교 6개 학교를 선정하여, 중학생 200명, 고

12) 통계청(2000), 사회·문화통계조사 결과.

문화관광부(2002나),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한국출판연구소(1997),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등학생 200명 총 40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조사 대상학교의 협조를 얻은 뒤 조사대상자인 학생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응답케 한 뒤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 400명의 인적 구성은 다양하면서도 타당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남학생 200명, 여학생 200명으로 안배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계 학생 100명, 인문계 학생 100명을 그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독서의 흥미도나 독서량이 남학생과 여학생은 다를 것이며, 환경이나 경제적·지적 수준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2) 자료의 선정

청소년을 위한 독서 자료의 적절성이 가장 커다란 연구과제이므로 설문조사나 연구 분석 대상 자료는 현행 청소년 독서 자료¹³⁾를 기본 자료로 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 독서 자료는 여러 기관에서 권장·추천 도서의 형태로 선정되어 발표된 자료들이다. 그러나 여러 기관의 청소년을 위한 권장 또는 추천 도서들이 각기 달라 이들을 모두 설문지에서 다루기에는 그 분량 면에서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현재 정기적·지속적으로 청소년 독서 자료를 추천하는 기관들이 2002년도에 선정한 자료들을 모아 보았다.

13) 엄밀한 의미에서 '현행 청소년 독서 자료'라는 말은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공신력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도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기관들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관광부,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 - 이 2002년도에 청소년 권장·추천도서로 선정하여 발표한 도서들을 종합하여 '현행 청소년 독서 자료'로 삼았다. 그러나 설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 너무 많은 자료를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답변에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이라 여겨 특히 이들 기관들이 중복 추천한 자료는 다른 자료보다 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 청소년 독서 자료의 대표 자료로 분류하여 설문 내용을 구성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III-3> 대표 자료 목록

(기준 : 3회 이상 중복 추천)

1	물총새 이야기	36	이상한 나라의 리씨
2	그대의 차가운 손	37	자전거 도둑
3	책벌레	38	재미나는 인생
4	셜록 홈즈 전집	39	점득이네
5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40	차에 치인 개
6	가출일기	41	초가집이 있던 마을
7	나의 산에서	42	한티재 하늘 1,2
8	내 남자친구 이야기/내 여자친구 이야기	43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9	압록강은 흐른다(상, 하)	44	우리들의 하느님
10	꼬마 이방인	45	재미나는 인생
11	가던 새 본다	46	농구화
12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47	희망의 이유
13	거짓말쟁이와 모나리자	48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14	국어시간에 소설 읽기1,2	49	생명의 느낌
15	국어시간에 시 읽기	50	우리과학 100년
16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51	과학의 즐거움
17	그리운 베이 아줌마	52	민족 과학의 뿌리를 찾아서
18	그림 속 나의 마을	53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2
19	49일간의 비밀	54	누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가
20	나 이제 외톨이와 안녕할지 몰라요	55	잡초는 없다
21	나는 아름답다	56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22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57	위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
23	아홉살 인생	58	거짓말쟁이와 모나리자
24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59	다이고로야, 고마워
25	시인을 찾아서	60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26	어느 전쟁 영웅의 당연한 죽음	61	전태일 평전
27	돌다리	62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28	땅에 그리는 무지개	63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9	몽실 언니	64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30	아름다운 고향	65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31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66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32	밥이 끓는 시간	67	그 때 세종이 소리친 까닭은
33	새	68	대서양 문명사
34	새의 선물	69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35	호밀밭의 파수꾼		

2002년도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대한 출판 문화 협회, 어린이도서연

구회, 시립 도서관 등 각 기관들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 독서 자료들은 모두 848종이었으며 이 중 중복된 자료 255종을 제외하면 총 593종이다.¹⁴⁾

이 도서 목록들을 모두 이용하여 설문을 구성한다면 학생들이 대답하기에 너무 지쳐 오히려 성실한 답변을 기피할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애로점이 있어 부득이 대표 자료를 구성하였다.

<표 III-3>은 이러한 분석절차상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중 3번 이상 중복 추천되는 도서 자료의 목록을 뽑아 69권의 도서를 선별한 대표 자료 목록이다.

이 대표 자료를 이용하여 설문 내용을 구성하고 설문을 이용한 분석의 대표 자료로 삼으며, 설문지를 제외한 기타 현황 분석에서는 전체자료 593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3) 설문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인적사항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질문을(성별, 나이 등) 제외하고 총 3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청소년 독서 자료로 선정된 도서 중 대표 자료인 69권의 도서 하나 하나에 관한 간단한 질문들이 들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69권의 도서들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면 103개의 문항이 된다.

설문의 주요 항목은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 수준, 학생들의 청소년 독서 자료 목록의 활용 정도와 자료별 인지도 및 자료로서의 적절성, 청소년이 공감함을 느끼고 선호하는 도서의 분야를 묻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

14) 자세한 사항은 <표III-1>참고.

- 독서량
- 흥미도
-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독서 방해 요인
- 독서태도

(2) 독서 자료의 활용과 적절성

- 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인지도
- 청소년 독서 자료 목록의 활용 정도
- 청소년 독서 자료로서의 적절성

(3) 청소년의 도서 및 장르 선호도

- 학교나 가정의 독서 정보 제공과 독서형태의 관계
- 도서 선호도

3. 설문 분석

1)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

청소년을 위한 독서 자료를 선정할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청소년의 독서 행태와 독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독서량, 독서에 대한 흥미도, 독서에 대한 인식 및 독서 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청소년이 독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독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청소년 독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청소년이 독서에 전혀 흥미가 없고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독서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제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1) 독서량

청소년의 독서량을 조사하여 본 결과 <표 III-4>과 같다.

전체 400명의 조사 대상 인원 중 한 학기 동안 1~2권 정도의 교양 서적을 읽는 학생이 36.5%(14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3~5권 정도를 읽는 학생이 27.5%(109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시 경쟁이나 여가시간 이용 형태의 변화, 특히 컴퓨터나 텔레비전의 영향 속에서도 꾸준히 독서를 하는 학생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청소년의 1학기 교양도서 독서량

(단위 : 명, %)

· 교과서 참고서 이외의 교양도서를 한 학기에 몇 권 정도 읽습니까?

구 분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	400		200		200	
1~2권	146	36.50	67	33.50	79	39.50
3~5권	109	27.25	58	29.00	51	25.50
6권 이상	84	21.00	44	22.00	40	20.00
안 읽는다	57	14.25	29	14.50	28	14.00
무응답	4	1.00	2	1.00	2	1.00

그러나 한 학기당 6권 이상 독서하는 학생이 21%로 나타나고 있는데 1달에 1권의 책을 읽는다면, 한 학기에 6권이 된다. 또한,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학생이 14.25%(57명)나 있으며 1%에 해당하는 무응답 학생들도 거의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1~2권의 독서량인 것으로 보아 중·고등학생들의 독서량이 한 달에 평균 1권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독서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독서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에 시간을 분산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독서 권장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관광부가 전국을 기준으로 조사한 독서량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의 한 학기 독서량이 1995년도에는 평균 10.3권이던 것이 1999년에는 8.35권, 2002년에는 7.1권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타나고 있다.¹⁵⁾

이러한 현상으로 보더라도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발생한 심각한 청소년 독서 부재 현상으로부터 청소년의 사선을 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독서에 대한 흥미도

청소년의 독서량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다른 어느 시기 보다 독서를 통한 사색이 필요한 때가 청소년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소년의 독서량은 지나치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청소년이 독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표 III-5>에서 볼 수 있듯이 독서에 대한 흥미도가 '좋아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2.25%로 가장 많고, '그저 그렇다' 32.5% '관심 없는 편이다' 10.5%로 나타나고 있다. '아주 좋아한다'라는 응답도 9.5%이며, 아주 싫어한다는 4.2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독서를 좋아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독서 흥미도를 위의 독서량(<표 III-4>)에 관한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책읽기를 좋아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5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독서

15) 문화관광부(2002나)

량은 저조하다.

<표 III-5> 독서에 대한 흥미도

(단위 : 명, %)

· 책 읽기에 대한 본인의 흥미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구 분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조사 대상수	400		200		200	
아주 좋아한다	38	9.50	21	10.50	17	8.50
좋아하는 편이다	169	42.25	76	38.00	93	46.50
그저 그렇다	130	32.50	71	35.50	59	29.50
관심 없는 편이다	42	10.50	18	9.00	24	12.00
아주 싫어한다	17	4.25	11	5.50	6	3.00
무응답	4	1.00	3	1.50	1	0.50

따라서, 독서에 관한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여기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32.50%라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독서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흥미 있는 독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면 청소년의 독서량과 독서 흥미도는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독서를 하는 이유, 즉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 보았다.

<표 III-6>에 의하면 ‘책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워서’라는 견해가 36.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라는 응답 26%,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가 24.5%로 나타났다.

<표 III-5>에서 독서에 흥미도가 높은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책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워서 독서를 한다는 청소년의 견해가 가장 지배적인 결과로 볼 때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독서 자료를 선정하고 사회적 독서 환경을 조성한다면 청소년의 독서 교육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표 III-6> 독서의 목적

(단위 : 명, %)

·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 분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	400		200		200	
새로운 지식/정보를 얻기 위해	104	26.00	55	27.5	49	24.5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98	24.50	46	23.0	52	26.0
학과 공부나 입시 공부에 도움이 되므로	26	6.50	15	7.5	11	5.5
책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워서	145	36.25	77	38.5	68	34.0
친구들과 수준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5	1.25	1	0.5	4	2.0
기 타	17	4.25	4	2.0	13	6.5
무응답	5	1.25	2	1.0	3	1.5

(3)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은 독서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나 실제 독서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이 독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독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표 III-7>와 같이 ‘독서는 생활화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41.2%였다. 그러나 ‘독서는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된다’는 의견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2.75%,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8.5%로 이 두 의견을 합하여 11.25%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에게는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점차 희박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서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이 독서 이외에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중학생보다는 고등

학생이 독서는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된다는 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입시 부담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7>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견해

(단위 : 명, %)

·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구 분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	400		200		200	
생활화되어야 한다	165	41.25	96	48.00	69	34.50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된다	186	46.50	84	42.00	102	51.00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11	2.75	3	1.50	8	4.00
잘 모르겠다	34	8.50	16	8.00	18	9.00
무응답	4	1.00	1	0.50	3	1.50

문화관광부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은 여가시간에 텔레비전 시청에 16%, 인터넷 하기 15.4%, 컴퓨터 게임 10.2%, 음악감상 7.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책읽기는 텔레비전 시청 보다 훨씬 적은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이러한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청소년은 독서는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독서보다는 다른 흥미를 끌 수 있는 여가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독서 방해 요인

청소년의 독서량을 줄어들게 하고 독서에 대한 인식을 약해지게 하는 직

16) 문화관광부(2002나)

접적인 요인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4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부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대답이 34.25%로 2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대답도 7.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타로 응답한 학생 중 그 이유를 살펴 본 결과 컴퓨터, 인터넷, 텔레비전 시청 등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8>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

(단위 : 명, %)

·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구 분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	400		200		200	
공부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	137	34.25	70	35.0	67	33.5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1	0.25	0	0.0	1	0.5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30	7.50	13	6.5	17	8.5
책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171	42.75	84	42.0	87	43.5
책 읽는 것을 싫어한다.	18	4.50	14	7.0	4	2.0
책을 사거나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15	3.75	6	3.0	9	4.5
학교 공부와 관계없으므로 읽을 필요가 없다.	8	2.00	3	1.5	5	2.5
기 타	14	3.50	9	4.5	5	2.5
무 응 답	6	1.50	1	0.5	5	2.5

이는 위<표 III-7>에서 살펴본 독서에 대한 인식과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학생들의 여가이용 실태 조사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독서량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독서량 감소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부/숙제/학원 때문에’라는 의견이 3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 29%, ‘독서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10.7%, ‘인터넷/컴퓨터 사용’

8.9%,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5.3%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평소 책읽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독서가 싫고 습관화 안됨’이 24.5%, ‘학교공부/학원 등 시간이 없음’ 24.2%, ‘컴퓨터/게임으로 시간 없음’ 15.0%, ‘어떤 책을 읽을지 모름’ 10.3%, ‘텔레비전 시청으로 시간이 없음’ 9.1%, ‘읽을만한 책이 없음’ 6.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 준다.¹⁷⁾

즉 현재의 청소년은 책보다는 더 흥미를 끄는 멀티미디어들 속에서 책을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며 더구나 공부, 학원, 입시라는 압박감 속에서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의 독서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난감함도 독서량을 줄여들게 하는 요인으로 덧붙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독서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독서 분위기 조성과 독서 정보에 관한 적극적인 자료 제공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5) 독서 태도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에 따라 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독서 집중도를 조사하여 보았다.

<표 III-9>에서 전체적으로 ‘흥미 있는 분야의 독서에는 열중한다’는 대답이 65.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방 싫증이 난다’ 12.5%, ‘글로 읽는 것을 싫어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11.75%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자신들의 수준과 사고의 범위에 알맞은 흥미 있는 독서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흥미를 유발시킨다면 독서에

17) 문화관광부(2002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III-9> 독서 태도

(단위 : 명, %)

· 평소 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구 분	전체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	400	
금방 싫증이 난다	50	12.50
글로 읽는 것을 싫어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47	11.75
흥미 있는 분야의 독서에는 열중한다	262	65.50
모든 분야의 독서에 아주 열중한다	21	5.25
무 응 답	20	5.00

조사 대상자 중 24.25%가 책읽기에 금방 싫증이 나고 글에 집중이 안 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통계자료인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의 영향으로 독서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독서 자료의 적절성

독서는 독서 자료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독자가 어떤 독서 자료가 있는 지를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다면, 독서 자료의 선택이나 양서 권장 목록 등에 관한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어떤 독서 자료에 대한 정보를 독자가 듣거나 보고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자료를 대상으로 실제 독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독서 자료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인지도

현행 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2002년도에 선정·추천된 독서 자료들 중 대표 자료 69종을 대상으로 도서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보았다.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3번 이상 중복 추천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독서 자료에 대한 제목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표 자료의 제목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은 21.64%이고, ‘듣거나 본 적 없다’가 75.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인지도

(응답자 수 400명, 대표 자료 수 69종)

(비율 : 응답수/전체 응답수×100)

· 다음 도서 목록을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오.

구 분	응답 수	비율(%)
듣거나 본 적 있다	5,973	21.64
듣거나 본 적 없다	20,787	75.32
무 응 답	840	3.04
조사 대상수(전체 응답수)	27,600 (응답자 수×대표 자료 수)	

이는 청소년 독서 자료로 추천되고 있는 도서 목록들이 실제 청소년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독서 자료로서의 효용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형식적 선정 절차로만 끝나는 명목만의 청소년 독서 자료 목록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각 기관들이 선정한 청소년 독서 자료들이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독서 자료를 알리는 작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 문화관광부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독서 진흥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 29.3%, ‘공공 도서관 증설 및 독서 프로그램 개발’ 16.2%로 나타났으며, ‘학교 도

서관 증설 및 독서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2가지를 합쳐 22.1%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독서 진흥 방안으로서 학교나 교사에게 희망하는 독서 지도 내용에 대한 질문에 교사의 적극적 독서 지도로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셨으면'이라는 답변이 1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독서 자료를 청소년에게 알리기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독서 자료를 선택하는 데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리 매체를 이용하거나, 각급 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목록을 전달하는 방법과 또래 집단을 이용한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문제이다.

(2) 청소년 독서 자료의 활용 정도

기존 단체들의 독서 자료 중 대표 자료에 대하여 청소년의 독서 수행 정도와 읽은 뒤의 청소년의 호응도를 알아보았다.

<표 III-11> 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독서 수행 정도

(응답자 수 400명, 대표 자료 수 69종)

· 다음 도서의 목록을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오.

구 분	응답 수	비율(%)	구 분	응답 수	비율(%)
읽었다	1,838	6.66	공감이 간다	1,402	76.28
읽지 않았다	24,922	90.30	공감이 가지 않는다	436	27.72
무 응 답	840	3.04	*비율 = $\frac{\text{응답수}}{\text{읽었다}} \times 100$		
조사 대상수	27,600				

<표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독서 수행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읽었다’의 비율은 6.66%이며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90.3%의 자료를 ‘읽지 않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III-10>의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의 독서 자료로서의 효용성과 그 가치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문제이다.

반면 흥미로운 것은 읽은 자료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읽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수의 대부분인 76.28%가 ‘공감이 간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도서를 선택할 때 주변의 정보에 따라서 이미 감명 깊다거나 재미있다고 알려진 도서들을 주로 선택해서 읽는다는 뜻이 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청소년에게 독서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한다면 이 독서 자료들은 청소년에게 감동을 주면서 높은 효용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추론을 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대표 자료들 중 ‘읽었다’라고 대답한 (<표 II-11>의 1,838개의 응답) 독서 자료의 목록 중에서 그 내용 분야면에서 문학과 비문학 분야로 나누어 독서의 수행 정도를 살펴 본 결과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분야별 독서 수행 정도

(응답자 수 400명, 대표 자료 수 69종)

· 다음 도서의 목록을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오.

구 분	응답 수	비율(%)
조사 대상수 (읽었다)	1,838	
문 학	1,456	79.22
비문학	382	20.78

문학 분야의 독서 비율이 전체의 79.22%를 차지하고 나머지 분야가 20.78%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독서를 할 때 주로 어떠한 분야를 선호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는 결과이다. 물론, 추천되고 있는 독서 자료 중

에서 문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설문 조사에 이용된 ‘대표 자료’ 69종 중 47종인 68%가 문학 분야인데 반해 문학 분야의 독서율은 전체의 79%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서 자료 목록과 상관없이 청소년은 문학 분야의 도서를 가장 선호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도서 중에서도 읽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표 III-10>의 자료에서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도서에 대한 독서 수행 정도와 읽지 않은 이유를 알아 본 결과가 <표 III-13>이다. 대표 자료 중 듣거나 본적이 있지만 안 읽었다는 응답은 69.23%에 해당하고 있다. 읽지 않은 이유로는 ‘재미없을 것 같아서’ 36.59%, ‘관심 없는 분야이므로’ 35.53%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기타로 응답한 내용으로는 ‘읽을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등이 많았다.

<표 III-13> 청소년의 독서 수행 정도

(응답자 수 400명, 대표 자료 수 69종)

(비율 : 응답수/조사 대상수×100)

· 다음 도서의 목록을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오.

구 분	응답수	비율(%)	* 비율 = $\frac{\text{응답수}}{\text{안읽었다}} \times 100$		
조사 대상수	5,973 (듣거나 본 적이 있는 자료)				
읽었다	1,838	30.77		응답수	비율
안 읽었다	4,135	69.23	재미없을 것 같다	1,513	36.59
			관심없는 분야	1,469	35.53
			기 타	1,153	27.88

이와 같은 결과는 오늘날의 청소년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청소년은 특징상 남이 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남들

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청소년의 흥미나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수렴하면서도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3) 청소년이 독서에서 흥미나 감동을 느끼는 요소

청소년의 독서량과 독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떠한 면에 흥미 있어 하고 감동을 느끼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표 독서 자료들 중 읽은 책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와 감동을 주는 요소들을 조사해 보았다.

응답 학생 400명 중 66명은 제시된 자료를 한 권도 읽지 않은 학생들이며, 334명은 그 중 1권 이상을 읽은 학생들이다.

<표 III-14> 청소년이 독서에서 흥미나 감동을 느끼는 요소

(복수 답변 가능, 단위 : 명, %)

· 가장 감동적이거나 흥미 있게 읽은 책이 있다면 그 이유는?

구 분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	334	
주제가 마음에 들어서	108	32.34
시간적 배경이 현대적이고 현실감이 있어서	38	11.38
공간적 배경이 되는 환경이 현실감이 있어서	100	29.94
이야기의 진행방법이 흥미 있어서	111	33.23
주인공의 성격이 나와 비슷해서	9	2.69
등장인물의 연령이나 환경이 나와 비슷해서	10	2.99
가치관 정립이나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되어서	30	7.50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되어서	12	3.00
기 타	106	26.50

제시된 자료 중 1권 이상을 읽은 학생 334명에 대하여 책을 읽으면서 흥미나 감동을 느꼈던 요소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복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도서의 내용 분야별로 책을 읽는 목적이나 흥미를 느끼는 동기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표 III-14>에서 볼 수 있듯이 ‘이야기의 진행 방법이 흥미 있어서’ 3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제가 마음에 들어서’ 32.34%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되는 환경이 현실감이 있어서’라는 답변이 29.94%, ‘시간적 배경이 현대적이고 현실감이 있어서’ 11.38%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의 경우 26.5%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읽었지만 감동을 느끼지 못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이 많았다.

또한, 청소년에게 흥미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지루하도록 하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러기 위하여 제시된 독서 자료를 읽은 학생 중에 흥미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를 조사하였다.

<표 III-15> 청소년의 독서과정에서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

(복수 답변 가능, 단위 : 명, %)

· 읽으면서 가장 재미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책이 있다면 그 이유는?

구 분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	334	
공간적 환경이 나의 환경과 동떨어져서	28	8.38
등장인물들과 세대차가 나서	5	1.50
시간적 배경이 현실감이 없어서	25	7.49
주제가 고리타분해서	66	19.76
주제가 너무 혁신적이어서	10	2.99
학과 공부와 상관이 없어서	7	2.10
이야기의 진행 방법이 지겨워서	73	21.86
기 타	148	44.18

<표 III-15>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타’ 44.18%로 그 내용은 읽은 책 중에서 ‘흥미나 감동을 느끼지 못한 도서는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이야기의 진행 방법이 지겨워서’ 21.86%, ‘주제가 너무 진부해서’ 19.76%, ‘공간적 환경이 나의 환경과 동떨어져서’ 8.38%, ‘시간적 배경이 현실감이 없어서’ 7.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4>의 ‘청소년이 독서에서 흥미나 감동을 느끼는 요소’와 <표 III-15> ‘청소년의 독서과정에서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은 이야기의 진행방법에 있어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도서를 선호한다.

둘째, 주제가 청소년의 사고 수준이나 이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며, 틀에 박힌 교훈적 내용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도서를 읽을 때 더 큰 공감을 느낀다.

셋째,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현실감이 있고 현대 감각에 맞는 도서를 더 선호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청소년의 정의적 특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독서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청소년의 정서나 지적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청소년이 즐겨 찾는 도서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4) 청소년 독서 자료의 적절성

청소년 독서 자료로 선정된 도서들이 청소년 독서 자료로서 적절한 효용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독서 자료와 청소년이 실제로 선택하여 읽는 도서와의 상관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최근에 읽은 도서들을 조사하여 그 도서들과 2002년도에 각 기관에서 청소년 독서 자료로 선정·추천되고 있는 전체 독서 자료 593종(표 III-1

참고)을 비교하여 상호 중복 여부를 파악하여 본 결과는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청소년의 최근 선호도서와 2002 독서 자료 중복 현황

(기준 : 상위 30위)

(단위 : 권)

·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의 제목을 장르 구분 없이 써 주세요.

구 분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자료수	상위 30위	상위 30위	상위 30위
중복 여부	8	7	7

중·고등학생들이 실제 읽는 독서 자료와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가 최근 읽은 도서 상위 30종 중에서 8종만이 593종의 기존 독서 자료와 중복되고 있다. 그리고 중학생이 최근 읽는 도서들 상위 30종 중에서는 7종만이, 고등학생이 읽는 도서 역시 상위 30종 중에서도 7종만이 전체 자료 593종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의 문제점을 확연히 보여 주고 있다. 즉, 실제로 청소년이 읽고 있는 독서 자료와 추천되고 있는 독서 자료와는 서로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청소년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다른 도서들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여러 공인된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 자료들이 과연 청소년을 위한 독서 자료로서 어느 정도 적절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외면당하는 청소년 독서 자료는 적절한 독서 자료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의 도서 및 장르 선호도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량을 늘리기 위하여 청소년

이 읽을 책을 선택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과 가정 및 학교의 독서 자료 추천 빈도를 조사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도서 분야와 선호하는 도서(도서명)에 대하여 조사해 봄으로써 독서 자료 선정의 기준을 위한 기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학교나 가정의 독서 정보 제공과 독서형태의 관계

㉠ 청소년의 독서 자료 선택에 기준이 되는 정보

청소년이 책을 선택할 때 주로 어디서 도서에 관한 정보를 얻으며 도서 선택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표 III-17>에서처럼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다.

<표 III-17> 청소년의 도서 선택 정보원

(단위 : 명, %)

· 읽을 책을 선택할 때 주로 선택동기가 되는 것은?

구 분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	400		200		200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122	30.50	64	32.0	58	29.0
학교나 선생님의 도서 추천으로	27	6.75	8	4.0	19	9.5
부모나 형제의 추천으로	16	4.00	9	4.5	7	3.5
친구의 추천으로	91	22.75	49	24.5	42	21.0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의 광고를 보고	78	19.50	36	18.0	42	21.0
여러 단체의 추천도서 목록을 보고	19	4.75	9	4.5	10	5.0
기타	36	9.00	18	9.0	18	9.0
무응답	11	2.75	7	3.5	4	2.0

다음으로 ‘친구의 추천’이 22.75%를 차지하며, ‘신문·잡지·텔레비전 등의 광고를 보고’ 19.5%로 나타났다. ‘학교나 선생님의 도서 추천’은 6.75%

이며, ‘여러 기관의 추천 도서 목록’은 4.75%의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부모나 형제의 추천’은 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로 답변한 학생들이 기입한 내용으로는 ‘서점에서 내용을 훑어보고’와 ‘책의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텔레비전 프로인 느낌표를 보고’ 라는 대답도 상당수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보아 학교나 가정의 도서 추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독서 자료 선택에 학교나 가정보다는 친구나 기타 매체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권위 있는 단체의 추천 도서 자료 목록의 경우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앞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추천 목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거의 없고, 청소년의 정서나 흥미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독서 자료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학생들은 오늘날의 청소년기의 특징인 시각적이고 즉시적인 성향으로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출판하거나 독서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제목에도 신경을 써서 그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목의 문구에서 그 도서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독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㉔ 학교의 도서 추천 현황

학교에서 청소년의 독서 교육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나 교사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회수를 조사해 보았다.

<표 III-18>에 의하면 학교나 교사가 도서를 추천하는 회수는 1년에 3~

4번 이상이 27.75%, 1학기에 한 번 정도 26.25%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1학기에 1번 이상은 학생들에게 독서 자료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8> 학교나 교사가 독서를 추천하는 회수

(단위 : 명, %)

· 학교나 선생님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독서 자료를 추천하는 횟수는?

구 분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	400		200		200	
1년에 한 번 정도	58	14.50	27	13.5	31	15.5
1학기에 한 번 정도	105	26.25	52	26.0	53	26.5
1년에 3~4번 이상	111	27.75	54	27.0	57	28.5
하지 않는다	97	24.25	51	25.5	46	23.0
무응답	29	7.25	16	8.0	13	6.5

그러나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4.25%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학교의 독서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은 아주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응답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의 추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로서 독서 자료 추천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학교가 독서 자료 목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크게 강조점을 두지 않고 사후 관리도 없이 단지 정보 제공만 한 결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학교에서의 독서 권장율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권장하는 편’ 32.5%, ‘보통’ 30.2%, ‘적극 권장’ 18.3%, ‘별로 권장 안 하는 편’ 12.6%의 순으로 나타나며, ‘전혀 권장 안함’도 6.5%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독서 지도 내용을 묻는 질문에 ‘독후감 쓰기’ 53.3%, ‘책 선택과 읽는 방법’ 18.4%, ‘도서관 이용/도서 분류’ 13.1%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독서지도가 전혀 없음’도 27.6%나

나타나고 있다.¹⁸⁾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 해 볼 때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으로 독후감 쓰기에 대한 지도는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형식적으로 보이며, 청소년을 위한 양서를 권장하는 작업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은 독서와 점차 멀어지며, 여가시간에 책 읽는 습관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독서지도와 양서 추천은 청소년의 독서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가정의 도서 추천 현황

가정에서 청소년의 독서 교육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도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부모나 형제가 독서 자료를 추천하는 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는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부모·형제가 도서를 추천하는 빈도

(단위 : 명, %)

· 부모나 형제가 도서를 추천하는 빈도는?

구 분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	400		200		200	
자주 추천한다	65	16.00	35	17.5	30	15.0
가끔 추천한다	147	36.75	78	39.0	69	34.5
거의 추천하지 않는다	92	23.00	40	20.0	52	26.0
관심없다	68	17.00	33	16.5	35	17.5
무응답	28	7.00	14	7.0	14	7.0

18) 문화관광부(2002나)

‘부모나 형제가 가끔 추천한다’가 36.75%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며, ‘자주 추천한다’는 16%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거의 추천하지 않는다’ 23%이며, ‘관심 없다’라는 응답도 17%나 된다. 더구나 응답하지 않은 7% 역시 독서에는 관심 없는 학생들로 보이며, 이 또한 가정에서 독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적극적 관심도는 빈약하며,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의 독서력 저하를 가져오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의 2002년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학부모의 자녀 독서 관심도에 관한 질문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매우 관심을 보임 26%, 대체로 관심을 보임 35.2%, 별로 관심 없음 7%, 전혀 관심 없음 3.1%로 나타나 자녀의 독서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10.1%이다. 중학생은 매우 관심을 보임 14.5%, 대체로 관심을 보임 32.6%이며, 별로 관심 없음 12.5%, 전혀 관심 없음 7.9%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의 독서에 관심 없는 경우가 20.4%로 초등학교보다 관심도가 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매우 관심을 보임 7.9%, 대체로 관심을 보임 21.1%, 별로 관심 없음 22.5%, 전혀 관심 없음 13.9%로 나타나 자녀의 독서에 대하여 36.4%의 부모가 관심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량 역시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고등학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생들의 독서량이 부족²⁰⁾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과 무관하다고 할 수

19) 문화관광부(2002나)

20) 문화관광부(2002나)

< 독 서 량 > (단위 : 권)

구 분	성인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연간독서량 (학생=한 학기)	10.0	11.6	20.5	7.6	6.6

없는 것이다.

(2) 도서 선호도

㉔ 도서 선호 분야

청소년이 선호하는 도서 분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은 2개 이상 중복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답 비율은 $\frac{\text{전체 응답수}}{\text{조사 대상수}} \times 100$ 으로 계산하였다.

<표 III-20> 청소년이 선호하는 도서 분야 (연령별)

(복수 선택 가능, 단위 : 명, %)

(비율 : 전체 응답수/조사 대상수×100)

· 다음 도서 장르 중 즐겨 읽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여러 개를 선택해도 됨)

구 분	전 체		중 학생		고 등 학 생	
	학 생 수	비 율	학 생 수	비 율	학 생 수	비 율
조사 대상수(중복 대답 가능)	400		200		200	
장편 소설	164	41.00	89	44.5	75	37.5
단편 소설	206	51.50	105	52.5	101	50.5
시	39	9.75	18	9.0	21	10.5
수필	80	20.00	29	14.5	51	25.5
오락·유머 도서	113	28.25	62	31.0	51	25.5
역사 도서	76	19.00	40	20.0	36	18.0
과학이나 미래 세계 등에 관한 도서	41	10.25	16	20.5	25	12.5
보도·생활정보·일반교양 도서	30	7.50	6	3.0	24	12.0
스포츠·음악·영화·미술 도서	78	19.50	32	16.0	46	23.0
컴퓨터 관련 도서	44	11.00	27	13.5	17	8.5
교육 도서	11	2.75	4	2.0	7	3.5
경영, 경제 관련 도서	21	5.25	9	4.5	12	6.0
범죄·수사·전쟁도서	67	16.75	33	16.5	34	17.0
영웅이나 위인들의 전기	61	15.25	29	14.5	32	16.0
만화류	234	58.50	111	55.5	123	61.5
기타	39	9.75	21	10.5	18	9.0

그 결과는 <표 III-20>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만화류를 좋아하는 청소년이 5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소설류로 단편소설 51.5%, 장편소설 41%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락유머 28.25%, 수필 20%, 스포츠·음악·영화·미술 도서 19.5%, 역사 도서 19%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를 좀 더 세밀히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여 보자.

연령별로 살펴볼 때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더 만화류를 즐겨 읽으며, 소설류를 읽는 비중도 중학생 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들은 97%가 소설류를 즐겨 읽고, 그 중 단편 소설 선호도와 장편 소설 선호도의 차이가 8% 정도의 차이로 단편 소설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90%가 소설류를 즐겨 읽으며, 장편소설보다는 단편소설을 선호하는 비중이 13% 더 크게 나타난다.

반면에, 중학생은 오락·유머 도서에 더 많이 치중하고 과학이나 미래 세계 등에 관한 도서도 20%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며, 수필류는 별로 읽지 않고 있으나, 고등학생은 오락·유머 도서와 같은 비중으로 수필류도 많이 읽고 있으며, 스포츠·음악·영화·미술 도서나 보도·생활정보·일반교양 도서도 중학생보다 더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사도서는 중·고등학생에 관계없이 약간의 비율 차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읽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연령별 특성과 중·고등학생의 환경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바로 진학하여 아직 정신적으로 또는 언어 이해 능력면에서 덜 성숙한 상태이므로 오락물이나 동화에 가까운 환상적 내용에 더 치중하고, 고등학생은 특성상 논리적이고 사고를 유발하는 문장을 더 좋아하고 있으므로 수필이나 보도·생활정보·일반교양 도서 등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책과 접할 수 없으므로 단문으로 이루어진 만화나 단편 소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도서 선호도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청소년이 선호하는 도서 분야 (성별)

(중복선택 가능, 단위 : 명, %)

(비율 : 전체 응답수/조사 대상수×100)

· 다음 도서 장르 중 즐겨 읽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 개를 선택 해도 됨)

구 분	전 체		남학생		여학생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조사 대상수(중복 대답 가능)	400		200		200	
장편 소설	164	41.00	77	38.5	87	43.5
단편 소설	206	51.50	84	42.0	122	61.0
시	39	9.75	15	7.5	24	12.0
수필	80	20.00	26	13.0	54	27.0
오락·유머 도서	113	28.25	65	32.5	48	24.0
역사 도서	76	19.00	43	21.5	33	16.5
과학이나 미래 세계 등에 관한 도서	41	10.25	25	12.5	16	8.0
보도·생활정보·일반교양 도서	30	7.50	11	5.5	19	9.5
스포츠·음악·영화·미술 도서	78	19.50	51	25.5	27	13.5
컴퓨터 관련 도서	44	11.00	26	13.0	18	9.0
교육 도서	11	2.75	8	4.0	3	1.5
경영, 경제 관련 도서	21	5.25	8	4.0	13	6.5
범죄·수사·전쟁도서	67	16.75	36	18.0	31	15.5
영웅이나 위인들의 전기	61	15.25	45	22.5	16	8.0
만화류	234	58.50	140	70.0	94	47.0
기타	39	9.75	24	10.5	15	7.5

여학생은 소설류를 더 선호하고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만화류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편소설과 단편 소설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역시 단편 소설류가 남·여학생 모두에게 더 인기가 있으며, 남학생은 오락·유머 도서를 더 좋아하지만 여학생은 수필류를 더 선호하고 있

다.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스포츠·음악·영화·미술 도서, 범죄·수사·전쟁 도서나 영웅이나 위인들의 전기, 역사도서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학생들은 소설류→만화류→수필→오락·유머도서 등의 순으로 20%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역사도서는 그 다음으로 16.5%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나 남학생들은 만화류→소설류→오락·유머도서→스포츠·음악·영화·미술 도서→영웅이나 위인들의 전기→역사도서 등의 순으로 20%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여의 성향을 잘 대변해 주는 결과로서 남학생들은 장문보다는 그림이나 단문으로 이루어져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도서나 역동적인 움직임이나 진행을 보여 주는 영웅담, 전쟁담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학생들은 가벼운 오락물보다는 기억에 남으면서 사색을 동반할 수 있는 소설류나 수필류 등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도서는 약간의 비율 차이는 있으나 남·여 모두에게 비교적 고루 읽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한 학기 동안 중·고등학생들의 일반 서적 독서량은 평균 11.6권이며, 만화 독서량은 20.7권으로 조사되었다.²¹⁾ 위의 조사 결과를 잘 뒷받침하여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글로만 이루어진 책보다 그림과 짙은 글이 들어가는 만화류를 더 좋아하며, 장문보다는 짧은 시간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단문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역사도서는 그 선호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인기(1998:111)는 만화의 범람은 독서에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반 독서 자료와는 달리 만화는 도서 현황에서 공식적 통계로

21) 문화관광부(2002나)

잘 잡히지 않고 독서 자료로서 공식적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종의 음성적 체제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책읽기의 시작은 문식성(文識性)에서 비롯되며, 발달과정의 문식성은 텍스트의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만화적 구성은 이러한 문식성을 길러 나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만화는 그 성격상 그림이 주가 되고 문장이 많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길러 주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아동기부터 만화적 구성으로 된 읽기 자료에 길들여진 청소년에게 글 중심의 읽기 자료가 부담스러운 것이 된다. 즉 간단한 문장이나 어법을 거의 무시하는 문장들을 읽는 것에 익숙해져 제대로 된 텍스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그 구조와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출간되고 있는 만화의 주제 또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거나 창조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물론, 교육적으로 훌륭한 만화도 많이 있으나 이러한 종류의 만화는 청소년에게 별로 읽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실제로 만화류를 더 많이 접하고 있으며 자신들도 독서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독서량을 묻는 질문에도 만화류는 제외하고 대답하고 있으면서도 만화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청소년의 흥미만을 위주로 도서를 선정한다는 것이 가지는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목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흥미와 교육성, 교훈성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 도서 선호도

청소년이 흥미를 가지고 읽는 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의 제목을 3권 정도 기입하라고 한 결과가 <표 III-22>이다.

가장 선호하는 도서는 ‘가시고기’로서 중·고등학생 400명중에서 20.3%의 학생들이 감명 깊은 도서로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팽이부리말 아이들’ 9.8%, ‘연탄길’ 9%, ‘해리포터 시리즈’ 8.5%, ‘아홉 살 인생’ 8.3%, ‘아버지’ 7.3%, ‘봉순이 언니’ 6.3%, ‘어린왕자’ 6.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2> 도서 선호도 (연령별)

()안은 비율(%)

·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언제 읽은 무슨 책입니까?

순 위	전 체(400명)	순 위	중학생(200명)	순 위	고등학생(200명)
1	가시고기 (20.3)	1	가시고기 (19.5)	1	가시고기 (21.0)
2	팽이부리말 아이들 (9.8)	2	해리 포터 시리즈 (12.5)	2	팽이부리말 아이들 (12.0)
3	연탄길 (9.0)	3	아홉살 인생 (11.0)	3	아버지 (11.5)
4	해리 포터 시리즈 (8.5)	4	국화꽃 향기 (9.0)	4	연탄길 (9.5)
5	아홉살 인생 (8.3)	5	연탄길 (8.5)	5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7.0)
6	아버지 (7.3)	6	팽이부리말 아이들 (7.5)		봉순이 언니 (7.0)
7	봉순이 언니 (6.3)	7	삼국지 (6.0)		어린 왕자 (7.0)
	어린 왕자 (6.3)	8	TV동화 행복한 세상(5.5)	8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6.0)
9	국화꽃 향기 (5.5)		어린 왕자 (5.5)	9	아홉살 인생 (5.5)
10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5.3)		봉순이 언니 (5.5)	10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4.5)
	삼국지 (5.3)	11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4.5)		삼국지 (4.5)
12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4.5)	12	오채불만족 (3.5)		해리 포터 시리즈 (4.5)
13	TV동화 행복한 세상 (3.8)		동대지기 (3.5)	13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5)
14	동대지기 (3.3)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3.5)		동대지기 (3.0)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3.3)	15	아버지 (3.0)		몽실 언니 (3.0)
16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3.0)		몽실언니 (3.0)	16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2.5)
	몽실 언니 (3.0)		모랫말 아이들 (3.0)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2.5)
18	오채 불만족 (2.8)		그리스로마신화 (3.0)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2.5)
19	우동 한 그릇 (2.5)	19	우동 한그릇 (2.5)		우동 한 그릇 (2.5)
20	오페라의 유령 (2.3)		오페라의 유령 (2.5)		황태자비 납치 사건 (2.5)
21	그리스로마신화 (2.0)	21	셜록홈즈 걸작선 (2.5)	21	가즈나이트 (2.0)
	모랫말 아이들 (2.0)	22	운수 좋은 날 (2.0)		갈매기의 꿈 (2.0)
	황태자비 납치 사건 (2.0)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2.0)		국화꽃 향기 (2.0)
24	갈매기의 꿈 (1.8)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2.0)		오채 불만족 (2.0)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8)		노인과 바다 (2.0)		오페라의 유령 (2.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8)				TV동화 행복한 세상 (2.0)

이를 세분하여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는 ‘가시고기’ 19.5%, ‘해리포터’ 12.5%, ‘아홉 살 인생’ 11%, ‘국화꽃 향기’ 9%, ‘연탄길’ 8.5%, ‘팽이부리말 아이들’ 7.5%, ‘삼국지’ 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1위는 역시 ‘가시고기’ 21%, ‘팽이부리말 아이들’ 12%, ‘아버지’ 11.5%, ‘연탄길’ 9.5%,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7%, ‘봉순이 언니’ 7%, ‘어린왕자’ 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중학생은 동화적이거나 긴장감이 있고 영웅적인 내용을 고등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감동 깊고, 잔잔한 내용의 도서나 논리적이고 사색적인 내용 또는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도서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는 중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 도서로 가시고기(5.2%), 연탄길(4.8%), 팽이부리말 아이들(4.7%), 해리포터(4.5%)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고등학생은 연탄길(5.9%), 팽이부리말 아이들(4.9%), 봉순이 언니(3.6%), 국화꽃 향기(2.4%), 가시고기(2.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중·고등학생의 성향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²²⁾

<표 III-23>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구별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남·여 학생들의 성격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남학생은 1위로 ‘가시고기’를 14.5%의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아홉살 인생’ 10.5%, ‘삼국지’가 10%로 3위, ‘팽이부리말 아이들’ 8.5%, ‘연탄길’ 8%, ‘해리포터’ 8%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학생은 1위는 ‘가시고기’로 26%의 응답률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팽이부리말 아이들’ 11%, ‘국화꽃 향기’ 10.5%, ‘아버지’ 10%, ‘연탄길’ 10%, ‘어린

22) 문화관광부(2002나)

왕자' 9% 등의 순서로 선호도를 보인다.

<표 III-23> 도서 선호도 (성별)

()안은 비율(%)

·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언제 읽은 무슨 책입니까?

순 위	전 체(400명)	순 위	남학생(200명)	순 위	여학생(200명)
1	가시고기 (20.3)	1	가시고기 (14.5)	1	가시고기 (26.0)
2	뽕이부리말 아이들 (9.8)	2	아홉살 인생 (10.5)	2	뽕이부리말 아이들 (11.0)
3	연탄길 (9.0)	3	삼국지 (10.0)	3	국화꽃 향기 (10.5)
4	해리 포터 시리즈 (8.5)	4	뽕이부리말 아이들 (8.5)	4	아버지 (10.0)
5	아홉살 인생 (8.3)	5	연탄길 (8.0)		연탄길 (10.0)
6	아버지 (7.3)		해리 포터 시리즈 (8.0)	6	어린 왕자 (9.5)
7	봉순이 언니 (6.3)	7	봉순이 언니 (6.0)	7	해리 포터 시리즈 (9.0)
	어린 왕자 (6.3)	8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4.5)	8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6.5)
9	국화꽃 향기 (5.5)		아버지 (4.5)		봉순이 언니 (6.5)
10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5.3)	10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3.5)		TV동화 행복한 세상 (6.5)
	삼국지 (5.3)	11	어린 왕자 (3.0)	11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6.0)
12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4.5)	1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2.5)		아홉살 인생 (6.0)
13	TV동화 행복한 세상 (3.8)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2.5)	13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5.5)
14	등대지기 (3.3)		등대지기 (2.5)	14	몽실 언니 (5.0)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3.3)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5)	15	등대지기 (4.0)
16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3.0)		수호지 (2.5)	16	모랫말 아이들 (3.5)
	몽실 언니 (3.0)		오체 불만족 (2.5)		황태자비 납치 사건 (3.5)
18	오체 불만족 (2.8)		우동 한그릇 (2.5)	18	그리스 로마 신화 (3.0)
19	우동 한 그릇 (2.5)	19	가즈나이트 (2.0)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3.0)
20	오페라의 유령 (2.3)		갈매기의 꿈 (2.0)		오체 불만족 (3.0)
21	그리스로마신화 (2.0)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2.0)	2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5)
	모랫말 아이들 (2.0)		너 (2.0)		아낌없이 주는 나무 (2.5)
	황태자비 납치 사건 (2.0)		백범 일지 (2.0)		오페라의 유령 (2.5)
24	갈매기의 꿈 (1.8)		오페라의 유령 (2.0)		우동 한 그릇 (2.5)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8)	25	로빈슨크루소 (1.5)	25	괴물 (2.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8)		아들아 인생은 머뭇거리기엔 시간이 없단다 (1.5)		백설공주를 사랑한 7번째 난장이 (2.0)
			운수 좋은 날 (1.5)		설록 홈즈 걸작선 (2.0)
					향수 (2.0)

남학생의 경우 긴장감과 영웅적인 무용담이 있는 내용, 또는 역사적이거나 사실적인 내용의 도서를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여학생의 경우는 감동적이거나 부드러운 내용의 도서나 신비감을 주거나 아름다운 내용의 소셜류 등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다.

전체 학생들의 도서 선호 경향을 볼 때 남학생·여학생, 중학생·고등학생의 성격적 특성이 고루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부드러운 내용, 동화적이거나 환상적인 내용, 긴장감 그리고 철학적인 사색을 동반하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청소년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느낌표 등)이나 여러 매체(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의 광고에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과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는 도서들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 독서 자료들을 선정하면서 여러 분야의 내용을 고루 안배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여러 매체나 수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또한 독서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청소년은 아직 성숙의 과정에 있으므로 그들의 흥미에만 치중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흥미와 교육성 및 교훈을 겸비한 건전한 내용의 도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IV.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의 방향

아무리 좋은 도서가 있더라도 독자가 그것을 읽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독서의 주체는 독자이므로, 독서 자료 선정은 대상 독자를 중심으로 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III장에서의 독서 자료 및 청소년 독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독서 자료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그 한 예로서 독서 자료를 선정해 본다.

1. 청소년 독서 자료의 문제점

제 III장에서는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독서 활동 실태 및 기존 독서 자료인 2002년도 각 기관의 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및 독서 활용 정도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청소년 독서 자료로서의 적절성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독서 관련 기관이 선정한 독서 자료 목록의 내용과 선정 현황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들이 추천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 자료 중 대다수인 41.15%를 문학 분야가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독자의 흥미를 잘 반영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 문학 분야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의 다양한 내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추천된 독서 자료들 중 3번 이상 중복 추천된 대표 자료 69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본 결과 청소년의 독서 자료에 대한 제목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수 중 75.32%가 ‘한 번도 듣거나 본적이 없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각 기관들의 청소년 독서 자료 목록이 당사자인 청소년에게는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이들 대표 자료 중 청소년의 독서 수행 정도는 더욱 낮은 수준으로 ‘읽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6%에 불과하며, 90.3%가 ‘읽지 않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 자료로서의 효용 가치를 의심하게 할만한 결과이다.

반면에, ‘읽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대부분인 76.28%가 읽은 도서에 대하여 ‘공감이 간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독서 자료로 추천된 독서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한다면, 청소년 독서 자료는 더욱 높은 효용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기관들은 청소년 독서 자료들을 선정하 뒤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매체들을 이용해 선정된 독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청소년이 독서 자료들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이 즐겨 읽는 도서 분야는 ‘문학’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69종의 대표 자료들 중 ‘읽었다’라고 응답한 도서의 목록 중에서 문학 분야의 독서 비율이 전체 독서 비율 중에서 7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가 2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청소년이 가장 부담 없이 선호하는 장르는 바로 문학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듣거나 본 적이 있지만 해당 독서 자료를 읽지 않은 이유는 ‘재미없을 것 같아서’ 36.59%, ‘관심 없는 분야이므로’ 35.53%로 나타나고 있어 72.12%의 응답이 본인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에 읽지 않았다는 답변인 셈이다. 이는 현대 청소년의 성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독서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청소년의 흥미나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수렴하면서도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이 청소년

독서 자료로서의 효용 가치를 발휘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각 기관들이 추천하고 있는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 593종과 청소년이 최근에 실제로 선택하여 읽는 독서 자료 중 상위 30위에 해당하는 도서들의 일치도는 7~8종에 불과하였다. 이는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은 추천되고 있는 독서 자료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도서들을 실제로 선택하여 읽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독서 자료 선정은 주로 독서 지도 전문가 등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성인 위주의 시각에 편중된 독서 자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 자료는 독서를 하는 독자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제시할 때 읽을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독서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는 요소와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종합해 본 결과 청소년은 이야기의 진행 방법이 역동적이고 속도감이 있으며, 주제가 자신들의 사고 수준이나 이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틀에 박힌 교훈적 내용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내용의 도서를 읽을 때 더 큰 공감을 느끼며,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현실감이 있고 현대 감각에 맞는 도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독서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청소년의 정서나 지적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청소년 독서 자료로서의 적절성을 갖춘 도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의 독서 자료에 관한 욕구

청소년의 독서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독서량, 독서에 대한 흥미도, 독서에 대한 인식 및 독서 태도, 주변 환경이 독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청소년이 감명을 느끼는 도서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독서 흥미도를 조사해 보면 ‘책읽기를 좋아한다’는 응답이 50%를 훨씬 넘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서량은 저조하다. 즉, 독서량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 학기에 1~2권의 독서량인 것으로 보아 중·고등학생들의 독서량이 한 달에 평균 1권 정도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독서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흥미도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독서량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시위주의 교육과 너무나 많은 곳에 시간을 분산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독서 권장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 본 결과 ‘책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워서’라는 견해가 36.25%로 가장 많았다.

독서에 흥미도가 높은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책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워서 독서를 한다는 청소년의 견해가 가장 지배적인 결과로 볼 때, 독서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의 수준에 알맞은 흥미 있는 독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면 청소년의 독서량과 독서 흥미도는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이 독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독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독서는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된다’는 의견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보다는 입시 부담이 큰 고등학생이 독서는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된다는 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은 여가시간에 텔레비전 시청에 16%, 인터넷 하기 15.4%, 컴퓨터 게임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책읽기는 이보다 훨씬 적은 6.6%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²³⁾ 이러한 결과로써 청소년이 독서보다는 다른 흥미를 끌 수 있는 여가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독서량을 줄여들게 하고 독서에 대한 인식을 약해지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책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42.75%, ‘공부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대답이 34.25%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평소 책을 읽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독서가 싫고 습관화 안 됨’이 24.5%, ‘학교공부/학원 등 시간이 없음’ 24.2%, ‘컴퓨터/게임으로 시간 없음’ 15.0%, ‘어떤 책을 읽을지 모름’ 10.3%, ‘읽을 만한 책이 없음’ 6.0% 등이 차지하고 있다.

즉,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현대의 청소년은 책을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며 더구나 공부, 학원, 입시라는 압박감 속에서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의 독서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난감함도 독서를 하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덧붙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독서력 향상을 위한 독서 정보에 관한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독서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에 따라 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독서 집중도를 조사해 본 결과 ‘흥미 있는 분야의 독서에는 열중한다’는 대답이 65.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의 지적 수준과 사고의 범위에 알맞은 독서 자료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흥미를 유발시킨다면 청소년의 독서량은 늘어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책 선택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무엇이

23) 문화관광부(2002나)

며, 가정 및 학교의 독서 자료 추천 실태와 독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청소년이 책을 선택할 때는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거나 친구의 추천 또는 신문·잡지·텔레비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학교나 가정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나 가정의 독서 자료 추천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청소년에게는 학교나 가정보다는 친구나 기타 매체의 영향력이 도서 선택에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은 오늘날의 청소년기의 특징인 시각적이고 즉시적인 성향으로 제목의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표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도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출판하거나 독서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제목이나 표지 디자인도 청소년의 성향에 맞도록 신경 써서 그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나 교사가 도서를 추천하는 회수는 1학기에 2번 이하로서 아주 미흡하며, 독서 자료 목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크게 강조하거나 사후 관리 등은 없이 단지 형식적 정보 제공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독서지도와 양서 추천은 청소년의 독서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나 형제가 양서를 추천하는 데 대한 관심도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의 2002년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학부모의 자녀 독서 관심도에 관한 질문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매우 관심을 보이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들의 독서량이 부족²⁴⁾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과 무관하

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의 독서력 저하를 가져오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이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주변 친구나 자신들의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그들이 흥미롭게 읽는 도서 분야를 조사하여 이를 기본 자료로 삼는다면 훌륭한 독서 자료 목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만화류를 가장 좋아하며, 다음으로 단편소설, 장편소설 등의 순으로 흥미도를 보이고 있다. 중학생은 오락·유머 도서나 과학이나 미래 세계 등에 관한 도서를 선호하고, 고등학생은 오락·유머 도서와 같은 비중으로 수필류도 많이 읽고 있으며, 그 외 스포츠·음악·영화·미술이나 보도·생활정보·일반교양 등 다방면으로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학생은 소설류를 더 선호하고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만화류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장편소설과 단편 소설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역시 단편 소설류가 남·여학생 모두에게 더 인기가 있으며, 남학생은 오락·유머 도서를 더 좋아하지만 여학생은 수필류를 더 선호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역사도서 스포츠·음악·영화·미술 도서, 범죄·수사·전쟁 도서나 영웅이나 위인들의 전기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은 장문보다는 그림이나 단문으로 이루어져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도서나 역동적인 움직임이나 진행을 보여 주는 영웅담, 전쟁담을 더 좋아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기억에 남으면서 사색을 동반할 수 있는 소설류나 수필류 등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연령간·성별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글로만 이루어진 책보다 그림과 짙막한 글이 들어가는 만화류를 더 좋아하며, 장문보다는 짧은 시간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단문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도서

는 약간의 비율 차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읽고 있다.

청소년이 흥미를 가지고 읽는 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의 제목을 적어 보라고 한 결과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1위가 ‘가시고기’로서 비록 성별이나 연령별로 관심 분야가 다르더라도 진한 감동을 주는 내용은 모든 청소년에게 큰 공감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청소년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느낌표 등)이나 여러 매체(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의 광고에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과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는 도서들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으며, 감동 깊은 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청소년기는 정의적 사고나 지식의 폭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적 성숙도의 차이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서 자료들을 선정하면서 여러 분야의 내용을 고루 안배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매체나 수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변에서 항상 책의 제목과 내용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독서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 기준의 설정과 방향

무수히 많은 독서 자료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자료는 어떤 것이고, 그것을 구별해 내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 시기와 구별되는 그 나름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보인다. 한철우·박진용(1998:133~135)에 의하면 다소간 개인차는 보이지만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특성은 청소년의 독서 능력 수준 등을 판단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정의적 발달 특성은 청소년의 요구나 흥미 발달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독서 자료가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특성과 정의적 발달 특성에 적합한 것이면, 그 독서 자료는 일단 독서 자료로서의 효용성을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자료를 선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인지적·정의적 발달 특성에 맞는 독서 자료들을 선택하여야만 그 효용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 독서 자료 선정 기준의 설정과 방향

청소년 독서 자료의 선정은 청소년의 감성과 시대적 상황 및 신체적·인지적·정의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독자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먼저 형식적 측면과 독서 흥미 발달적 측면, 내용적 측면, 사회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독서 자료 선정 기준을 설정해 봄으로써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의 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형식적 기준

독서 자료 선정시 표면적, 형식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이 쓰여진 연대나 시대적 배경이 뚜렷해야 한다. 설문 조사 결과 청소년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현실감이 있는 도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역사소설과 전기는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개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문장 구성이 간결하면서도 청소년의 어휘력에 알맞은 작품이어야

한다. 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즉 어휘, 문장의 이해, 단락의 구분 등은 개인차가 크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능력에 맞는 책이어야 한다.

한 문장의 길이는 20단어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한 형식내의 문장 수가 10문장은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은 지루한 내용이나 구성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이 너무 복잡하고 길면 지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중도에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책의 표지나 제목은 책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되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의 감각에 맞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설문 조사 결과 청소년은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읽을 책을 선택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컬러 텔레비전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청소년에게 신선한 느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목과 표지를 선택한다면 독서량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글의 구조 역시 청소년기의 정의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어 지루함이 없도록 하면서도 이야기의 전개가 구체적이고 생기 있으면서, 상상력이 풍부하게 조직 되도록 하고 더불어 현실감이 있으면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설문 조사 결과 청소년은 이야기의 진행 방법이 역동적이고 속도감이 있는 도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독서 흥미 발달적 기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적절히 비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독서능력이다. 이러한 독서 능력은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별 특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독서 흥미의 발달 단계 역시 성장 단계별로 점차 발전한다.

박순길(1963:63~64)은 청소년 독서 자료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교과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서로 교양과 성장 발달 단계에 부합되는 양서이며, 건전한 가치관과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는 도서라고 하고 있다.

독서 자료는 독자의 발달단계에 맞아야 한다. 청소년기는 인지적·정서적 발달의 개인차가 아주 폭넓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중학생의 특성을 지닌 고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생의 특성을 지닌 중학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 내용이 개인의 수준에 맞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독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성장 과정에 따른 독서 흥미 발달 단계 구분에 관한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기는 문학과 사색기에 속하는 시기이므로 독서 자료로는 통속문학이나 순문학, 역사 이야기, 종교 관련도서, 사색적인 내용의 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정하여 건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품성을 갖추는 준비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문학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독서 능력면에서는 독서 능력이 완숙에 이르는 시기로서 목적 있는 독서와 독서 자료 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성인 수준의 독서 자료를 처음으로 읽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갓 중학생이 된 청소년을 위하여 동화에 가까운 책 중에서 읽을 만한 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이 되었다고 갑자기 어려운 책을 읽히면 책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학생의 경우에는 동화에 가까운 환상적 내용, 오락물이나 긴장감이 있고 영웅적인 내용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색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은 독서 능력면에서 독서 목적, 독서 자료에 따라 적절한 독서 기술을 구사하며, 사고도 하고 평가·비교·종합하고 사색하여 창조적 경지에 이르는 시기이다. 따라서, 문학의 다양한 장르와 역사나 종교, 철학, 사회과학 관련 도서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도서들을 고루 선정하여 사고력과 비판 능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등학생들은 감동 깊고, 잔잔한 내용의 도서나 논리적이고 사색적인 내용 또는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도서, 그 외에도 예능이나 생활정보, 일반교양 도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시련과 난관을 겪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찾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래들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인생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은 읽을 도서를 선정할 때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제가 자신들의 사고 수준이나 이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현실감이 있고 현대 감각에 맞는 도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역사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랑을 키워줄 책들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내용적 기준

사춘기와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어떤 독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나름의 지적 감수성을 일깨워가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 독서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고른 안배가 필요하며, 교육성, 감동과 흥미, 건전성 등의 양면적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공신력 있는 독서 관련 기관들이 추천하고 있는 기존 독서 자료가 문학 분야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독서 능력이 완성되고,

비판력과 사고력을 기르게 되는 청소년의 내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설문 분석 결과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고 흥미 있게 읽는 분야가 문학 분야로 나타나므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문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 중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과 구조로 이루어진 도서들을 선정하는 비중을 더 늘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정서적 지적 발달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독서 자료는 교육성이 있고, 교훈을 주는 책이어야 한다. 읽은 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은 인격으로 완성된다면 교훈의 효과를 책이 주는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 성장의 과정에 있으므로 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완전히 갖추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문학성이나 흥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면도 바탕에 깔린 책이 좋다. 즉, 문학성과 흥미를 교육적으로 살린 도서여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도서는 만화류가 압도적이었다. 만화류는 청소년의 지적·정의적 발달에 올바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분야이다. 청소년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만화류가 읽기 편하다는 이유로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독서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청소년의 흥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셋째, 독서 자료는 감동을 주는 책이어야 한다. 책을 읽고 나서 오래 기억되는 내용이 좋은 책이다. 책에서 받은 감동은 자칫 흥미와 연관시키기 쉬우나 흥미는 감동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으나 흥미 자체가 곧 감동이 될 수는 없다. 책 속에서 받은 감동이 일생을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책을 권장해야 한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연령별·성별로 약간의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가장 감명 깊고 인상에 남는 책으로 성별이나 연령별 구분 없이 1위로 ‘가시고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 역시 감동을 주는 책을 많이 읽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작품이어야 한다. 기성세대의 사고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각을 길러 줄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독서 자료들이 성인의 기준으로 양서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선정하고 있다.

각 기관들이 추천하고 있는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와 실제로 청소년이 선택하여 읽는 독서 자료를 비교하여 본 결과 거의 일치하지 않고 있다. 즉, 청소년은 추천되고 있는 독서 자료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도서들을 실제로 선택하여 읽고 있다는 것이다. 독서 자료는 독서를 하는 독자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제시할 때 그 도서는 읽을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은 주제가 자신들의 사고 수준이나 이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틀에 박힌 교훈적 내용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내용의 도서를 읽을 때 더 큰 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건전하고 건강한 내용이어야 한다. 부정적인 요소나 지나치게 잔인성과 난폭성이 있는 내용은 피하고 건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어야 한다.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화류의 대부분이 바로 부정적이며, 잔인하고 난폭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의 흥미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의 흥미도를 고려한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청소년 독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대다수의 청소년이 흥미롭게 읽는 도서이어야 한다. 물론, 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교육적 성격만을 강조한 주제는 자칫하면 청소년에게 외면 당하기 쉬우므로 이를 잘 절충하여야 한다.

성인의 입장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흥미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그러나 기존의 독서 자료들은 독서 전문가나 교사 등 성인의 관점에서 선정한 도서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대의 청소년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성세대가 따를 수 없는 사고의 전환과 발상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감정과 입장을 중시한다.

설문 조사에서 제시된 대표 자료를 읽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극소수이며, 대다수의 청소년은 듣거나 본 적이 있지만 해당 독서 자료를 읽지 않은 이유로 본인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독서 집중도를 조사해 본 결과 흥미 있는 분야의 독서에는 아주 열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지적 수준과 사고의 범위 및 흥미도에 알맞은 독서 자료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흥미를 유발시킨다면 청소년의 독서량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청소년이 도서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친구의 권유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중 독서에 흥미 있는 평가단 또는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훌륭한 독서 자료가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지나치게 신간만을 위주로 선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현재 독서 자료 목록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기관들 중 대부분이 최근 1년 사이에 발간된 도서들을 대상으로 독서 자료로 선정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청소년 독서 자료 목록에서 한 번도 들어 본적 없다는 응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독서 자료 선정 기관들이 1년 이내에 발간된 신간 위주로 독서 자료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청소년의 흥미도를 유발하기 위하여 출판된 지 1~2년 이상이 지나면서 독자들의 감증을 거친 도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4) 사회 환경적 기준

정진화(2000:18)에 의하면 오늘날은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정보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일반 대중의 독서력 변화를 유발시켜, 다량 독서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 단문을 읽는 독자와 잠시적 기회로 책을 읽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한다.

더구나 오늘날의 청소년은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으면서 ‘입시 및 공부’와 ‘독서’는 별개라는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독서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상실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환경이 더 많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너무 많은 도서 종류를 선정하여 부담을 주기보다는 청소년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에 대부분을 읽을 수 있는 적당한 분량으로 약 50권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이나 흥미도는 아주 높은 편이나 실제 독서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분석 결과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현대의 청소년은 독서보다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인터넷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책을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며 더구나 공부, 학원, 입시라는 압박감 속에서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보다는 입시 부담이 큰 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독서량이 부족하고, 단문의 책을 읽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분량을 청소년 독서 자료로 선정하여 제시한다면 오히려 정신적 부담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둘째, 청소년기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다른 매체에 자신들의 여가를 분산시키기도 하지만, 학교나 학원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입시 부담이 학교 공부와 관

게없어 보이는 교양 독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학교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현대의 청소년이 아무리 특이한 성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각급 학교에 알맞은 독서 자료들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리면서 국어과 수업시간의 연장인 수행평가 등을 이용하여 독서 자료들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수능이나 기타 대입에 그 해의 독서 자료들을 지문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는 청소년 필독도서로서 정책적으로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각 기관들에 의해서 선정된 독서 자료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열의가 필요하다. 설문 분석 결과 현재 추천되고 있는 독서 자료의 목록은 청소년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독서 자료 목록이 수백 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상당수가 독서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정된 독서 자료 목록들을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알리는가 하는 문제는 청소년의 독서력 향상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도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구, 텔레비전 등의 매체, 인터넷, 학교나 가정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설문 분석 결과 친구의 권유와 텔레비전이나 기타 매체의 프로그램과 광고를 통하여 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독서 정보에 관한 적극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면 청소년의 독서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넷째, 가정에서 청소년의 독서에 관한 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실제로 부모가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양서를 자주 추천하는 초등학교 학생에 비하여 부모가 독서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고등학생의 독서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가정의 관심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캠페인 활동 및 학부모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과 방법을 강구한다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게임, 인터넷에 훨씬 못 미치는 청소년의 독서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독서 자료 선정의 실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많은 도서 속에서도 오히려 독서 부재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서들을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일이다.

특히, 성장기의 한 중간에 있으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하면서도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인격형성 및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독서 자료를 선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독서 자료는 연구의 과정에서 선정해 본 일례에 불과하며, 많은 양서 중 일부로서 이 도서만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도서 목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이 추천하는 청소년 독서 자료

본 논문의 가장 큰 취지가 청소년의 흥미를 반영하면서도 청소년 독서 자료로서 손색이 없는 도서 목록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존 청소년 독서 자료와 청소년이 실제로 감동 깊게 읽는 독서 자료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절충안으로서의 독서 자료 목록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표 IV-1> 청소년이 추천하는 청소년 독서 자료

- 본인이 청소년 권장 도서를 선정하는 선정위원이라면 추천하고 싶은 책과 그 장르는?

순위	도 서 명	순위	도 서 명
1	가시고기	15	삼국지
	연탄길		어린 왕자
3	팽이 부리말 아이들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아버지	22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5	해리 포터		뇌
6	삼국유사		다이고로야 고마워
	아홉살 인생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8	등대지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10	봉순이 언니	28	먼 나라 이웃나라
	국화꽃 향기		모랫말 아이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무소유
	백범일지		바이 코리아
	TV동화 행복한 세상		상실의 시대
15	갈매기의 꿈		셜록 홈즈 전집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어머니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몽실 언니		황태자비 납치 사건

<표 IV-1>은 청소년이 청소년 독서 자료로 적극적으로 추천한 도서들이다. 이를 참고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다면 훌륭한 독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의 실례

청소년이 실제 읽고 추천한 독서 자료를 모두 청소년 독서 자료로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신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자칫하면 흥미 위주만으로 책을 선택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시각과 절충하여 교육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기 위한 세밀한 검토 역시 필요하리라 본다.

<표 IV-2>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의 예

총 류	넘 재밌는 숫자의 비밀풀기	문	가시고기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갈매기의 꿈
철 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문	팽이 부리말 아이들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국화꽃 향기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피노키오는 사람인가 인형인가		등대지기
종 교	그리스 로마 신화	문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백설 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사 회 과 학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봉순이 언니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삼국지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학	아버지
순 수 과 학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아홉 살 인생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연탄길
	틀을 깬 과학자들		태백산맥 1~10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물리의 세계		해리 포터
기 술 과 학	확률의 도깨비(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 시리즈)	학	TV 동화 행복한 세상
	천재 과학자들의 숨겨진 이야기		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 교실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프로이트는 요리사였다		백범일지
예 술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사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창조의 수수께끼를 푼 레오나르도 다빈치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 생활사 박물관		생명을 풀무질하는 농부 - 원경선의 나누는 삶 이야기
			전태일 평전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표 IV-2>는 청소년이 추천한 도서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면 서도, 청소년의 사고 기준에 적합한 흥미와 교육성·교훈성에 손색이 없는

도서들을 청소년 독서 자료의 한 예로서 선정하여 보았다. 이를 앞에서 설정한 선정 기준 및 방향에 맞추어 분류하여 보자. 물론, 1권의 도서가 모든 기준을 다 만족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서로 병행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분류해 보고자 한다.

㉔ 시대적 배경이 뚜렷한 작품이어야 한다.

시대적 배경이 뚜렷한 작품으로는 ‘삼국지, 아버지, 태백산맥,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백범일지,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전태일 평전,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등을 들 수 있다.

㉕ 간결한 문장 구성 및 청소년의 어휘력에 알맞은 작품이어야 한다.

문장 구성이 지루하고, 청소년의 어휘력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중도에 읽기를 포기하거나 아예 읽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간결한 문장 구성과 청소년에게 적합한 어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는 ‘넌 재밌는 숫자의 비밀풀기,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피노키오는 사람인가 인형인가,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물리의 세계, 팽이 부리말 아이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백설 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아홉 살 인생, 연탄길, TV 동화 행복한 세상’ 등이 있다.

㉖ 사건의 전개가 빠르고, 지루하지 않으며, 생기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역동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 도서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 틀을 깬 과학자들, 천재 과학자들의 숨겨진 이야기, 삼국지, 태백산맥, 해리 포터,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전태일 평전’ 등을 들 수 있다.

㉗ 문학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위해서는 동화에 가까운 작품을 선정한다.

아직 독서 능력이 완성되지 못한 중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독서 자료를 제시하면 오히려 읽지 않고 회피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동화에

가까운 책 중에서 선정한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 팽이 부리말 아이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백설 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아홉 살 인생, 해리 포터, TV 동화 행복한 세상’ 등을 들 수 있다.

- ㉠ 사색가의 고등학생을 위해서 사고력과 비판 능력을 기르기 위한 작품을 선정한다.

독서 능력이 완성되어 성인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는 고등학생들은 사고력과 비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도서들을 선호한다. 이러한 종류의 독서 자료로는 ‘달레마에 빠진 인터넷,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피노키오는 사람인가 인형인가,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습관,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프로이트는 요리사였다, 갈매기의 꿈, 등대지기, 삼국지,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아버지,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창조의 수수께끼를 푼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들 수 있다.

- ㉡ 청소년 주인공이 시련과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정한다.

청소년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인공의 통한 간접 경험이 인생의 지혜로 남게 될 수 있다. 그러한 도서들로는 ‘틀을 깬 과학자들, 천재 과학자들의 숨겨진 이야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봉순이 언니, 아버지, 해리 포터, TV 동화 행복한 세상’ 등을 들 수 있다.

- ㉢ 역사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랑을 키워줄 작품을 선정한다.

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간접 경험은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이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역사와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건

전한 인식을 키워줄 도서로는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 교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한국 생활사 박물관, 삼국지, 아버지, 태백산맥, 거꾸로 읽는 세계사,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백범 일지,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명을 풀무질하는 농부 - 원경선의 나누는 삶 이야기, 전태일 평전,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등을 들 수 있다.

㉠ 교육성이 있고, 교훈을 주는 작품이어야 한다.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의 흥미만을 고려하여 청소년 독서 자료를 선정할 수는 없다. 교육성과 교훈을 주는 독서 자료로는 ‘넘 재밌는 숫자의 비밀풀기,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세상의 절반 여성 이야기,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틀을 깬 과학자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물리의 세계, 확률의 도깨비(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 시리즈),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 교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창조의 수수께끼를 푼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국 생활사 박물관, 가시고기, 갈매기의 꿈, 꿩이 부리말 아이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봉순이 언니, 아버지, 아홉 살 인생, 연탄길, TV 동화 행복한 세상, 거꾸로 읽는 세계사,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백범 일지,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명을 풀무질하는 농부 - 원경선의 나누는 삶 이야기, 전태일 평전,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

왔을까’ 등 대부분의 도서들이 이에 속한다.

㉔ 감동을 주는 작품이어야 한다.

감동을 주는 책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독서 자료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 교실, 가시고기, 갈매기의 꿈, 뎡이 부리말 아이들, 국화꽃 향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등대지기,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백설 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봉순이 언니, 아버지, 아홉 살 인생, 연탄길, TV 동화 행복한 세상, 생명을 풀무질하는 농부 - 원경선의 나누는 삶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㉕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작품이어야 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인식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독서 자료로는 ‘넘 재밌는 숫자의 비밀풀기,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피노키오는 사람인가 인형인가,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틀을 깬 과학자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물리의 세계, 확률의 도깨비(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 시리즈), 천재 과학자들의 숨겨진 이야기,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 교실, 프로이트는 요리사였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창조의 수수께끼를 푼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들 수 있다.

㉖ 건전하고 건강한 내용이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독서 자료는 건전하고 건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피노키오는 사람인가 인형인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틀을 깬 과학자들,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
교실, 창조의 수수께끼를 푼 레오나르도 다빈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갈매기의 꿈, 팽이 부리말 아이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봉순이 언니,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아버지, 아홉 살 인생, 연탄길, TV 동화 행복한 세상, 거꾸로 읽는
세계사,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백범 일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명을 풀무질하는
농부 - 원경선의 나누는 삶 이야기,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 생활사 박물관' 등 대부분의 도서들이 이에 속한다.

㉔ 청소년의 흥미도를 고려한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흥미 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 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독서 자료로는 '넘 재밌는 숫자의 비밀 풀기,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피노키오는 사람인가 인형인가,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확률의
도깨비(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 시리즈), 가시고기, 갈매기의 꿈,
팽이 부리말 아이들, 국화꽃 향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등대지기,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백설 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봉순이 언니,
삼국지, 아버지, 아홉 살 인생, 연탄길, 태백산맥, 해리포터, TV 동화
행복한 세상,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백범 일지' 등을 들 수 있다.

V. 결 론

독서는 심성을 개발하여 감정이나 사상의 성숙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인생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독서는 정서를 함양하고 생각과 지식을 넓혀주어 인격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입장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격을 배양하고 자율 학습을 돕는 교육 방법으로서 독서 경험을 통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잘 선정된 독서 목록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책 중에서 필요한 책을 고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수준에 알맞은 책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체들은 독서 자료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 자료에 관한 정보들은 청소년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독서 자료의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소년을 위해 선정되고 추천되는 독서 자료들이 실제로 청소년에게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바탕으로 현재 각 기관에서 추천되고 있는 청소년 독서 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흥미 분야를 분석하여, 청소년에게 흥미와 공감을 주면서도, 올바른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독서 자료를 선정하고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선, II장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징 및 청소년과 독서와의 관계, 독서 환

경의 변화와 청소년 독서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고, III장에서 본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 자료에 관한 설문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현행 독서 자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IV장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의 방향에서는 청소년 독서 자료로서의 기존 독서 자료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흥미를 반영하면서도 인격 형성과 다양한 삶의 경험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기 위한 청소년 독서 자료 선정의 기준과 독서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청소년에게 추천할 독서 자료를 선정하여 그 실효로서 제시해 보았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들이 추천하고 있는 권장도서들이 문학 분야에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독서 자료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들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청소년은 기존 독서 자료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도서들을 실제로 선택하여 읽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청소년이 가장 부담 없이 선호하는 장르는 문학 분야이며, 연령간·성별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글로만 이루어진 책보다 그림과 짤막한 글이 들어가는 만화류를 더 좋아하며, 장문보다는 짧은 시간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단문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설문 조사를 통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독서 자료의 선정 방향을 작품의 배경, 문장 구성, 전개 구조 등의 ‘형식적 측면’,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과정을 고려한 ‘독서 흥미 발달적 측면’, 교육성·감동과 흥미·건전성 등의 양면적 성격을 고려한 ‘내용적 측면’, 오늘날 청소년의 입시 부담 등을 해소하여, 독서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 환경적 측면’의 4가지로 분류하여 설정해 보고 한 예로서 청소년 독서 자료를 선정하여 보았다.

본 논문의 근본 목적이 청소년이 외면하는 추천 독서 자료가 아닌, 청소년

년의 흥미도를 반영하면서도 양서로 인정 될만한 절충형 독서 자료를 선정 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 된 청소년 독서 자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에 불과한 참고 자료로서 선정해 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독서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청소년기 인격 형성에 있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독서율 향상과 독서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 강향옥(2001), 「초등학교 저학년 권장도서 선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강혜원(1996), 「학교 독서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교육월보』 10.
- 고수진(1998), 「우리나라 독서교육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교보문고(2002), 『2002 종합 도서베스트셀러 (연간)』.
- 교육부(1999), 「초·중등학교의 독서 자료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 개발 연구」, 『교육 정책 개발 연구 과제』.
- 구학봉(1998), 「열린교육과 독서 교육 정책의 방향」, 『출판문화』 11.
- 김 영(1998), 「독서와 인성 함양」, 『독서연구』 제3호.
- 김경일(1993), 『독서교육론』, 일조각.
- 김미경(1999), 「직장여성의 독서실태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상아(1997), 「다매체시대에 있어서 청소년 독서 행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숙자(1989), 「학교교육에서의 독서지도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환(1994), 「독서운동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출판연구』 제6호.
- 김재윤(1996), 「학생 독서 실태와 독서환경」, 『교육월보』 10.
- 김형경(1998), 「초등학생 독서 자료 선정기준 설정 및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효정 외(1997),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 김효정(1992), 『독서의 힘: 미래의 세계를 활짝 연다』, 구미무역.
- 노명완(1998), 「독서 자료의 비판적 고찰」, 『독서연구』 제3호.
- 대한출판문화협회(2002), 『2002년 이달의 청소년 도서』.
- 로베르 에스카르피, 임문영 옮김(1985), 『책의 혁명』, 보성사.
- 문화관광부(2002가), 『추천도서 선정목록』 (제35회).
- _____ (2002나), 『2002 국민 독서 실태 조사』.
- 박병길(1990), 「중·고등학생들의 독서 실태 분석을 통한 독서 지도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순길(1963), 「책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밭교육』 7.
- 박영목(1998), 「좋은 책과 나쁜 책」, 『독서연구』, 제3호.
- 박은자(1996), 「청소년용 독서 자료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창간호.
- 박인기(1998), 「아동용 독서 자료의 비판적 고찰」, 『독서연구』, 제3호.
- 백영균(2000), 「다매체 시대의 청소년 독서 실태와 독서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2002), 『2002년도 학년별 어린이 독서 자료 목록』.
- 손정표(1998), 『독서 지도 방법론』, 학문사.
- 시립도서관(2002가), 『2002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 _____ (2002나), 『2002년 9월 독서의 달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
- 신헌재(1998),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광.
- 신헌재 외(2000),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박이정.
- 엄화자(1994), 「초·중·고교생들의 독서태도와 가치성향 및 행동특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유현상(1999), 「초등학교 권장 도서 선정에 관한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윤현원(1994), 「독서경향에 따른 효율적인 지도에 관한 연구: 중학교를 대

- 상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경근(1995), 「신세대 대상광고의 표현방향 설정연구」, 『광고연구』 제 27호, 한국방송공사.
- 이경미(1994), 「아동의 독서정보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경식(1979), 『새로운 독서 지도』, 집문당.
- 이상훈(1987), 「청소년 독서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영숙(1998),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청소년의 독서행태와 독서교육의 방향」, 공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우정(1996), 「한국의 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정춘(1996), 「뉴미디어시대의 독서교육」, 『교육월보』 10.
- 이중한(1992), 「삶의 양식의 변화와 독서양상」, 『출판저널』 7.
- 이지호(1998), 「독서와 쾌락」, 『독서연구』 제3호.
- 정양순(2000), 「초등학교에서의 효율적인 독서 자료 선정과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정옥련(1998), 「독서와 청소년 지도」, 『독서연구』 제3호.
- 정종기(1994), 「고등학교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정진화(2000),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2002), 『독서 교육 길라잡이』, (주)도서출판 푸른숲.
- 통계청 보도자료(2000), 『2000 사회 통계조사 결과』.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2002),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 제45차~제48차.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7), 『청소년 심리학』, 서원.

한국출판연구소(1995), 『1995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

_____ (1997), 『제5회 국민독서실태조사』.

한중경(1996), 『학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초독서공부법』, 프레스빌.

한철우(1998), 「사람들은 왜 책을 안 읽는가」, 『독서연구』, 제3호.

한철우·박진용(1998), 「청소년 독서 자료의 분석」, 『독서연구』, 제3호.

허병두(1996), 「교과서와 독서교육」, 『교육월보』 10.

부록1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독서생활과 독서에 대한 흥미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어떤 종류의 도서를 선호하는지를 파악하여 청소년에게 좋은 책을 추천함으로써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은 순수한 통계처리용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사실대로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혜경 드림

☞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의 문항에 ○표 하거나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 일치하는 문항이 없으면 기타란에 의견을 기록해 주십시오.

● 학생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 학생의 현재 나이는? (만 세)

- ① 중학생 ② 고등학생 ③ 기타 ()

1. 교과서 참고서 이외의 교양도서를 한 학기에 몇 권 정도 읽습니까?

- ① 1-2권 ② 3-5권 ③ 6권 이상 ④ 안 읽는다.

2.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언제 읽은 무슨 책입니까? (여러 권 써도 됨)

- | | | | |
|--------|---|----|-------|
| ① 책제목; | (| 살, | 학년 때) |
| ② 책제목; | (| 살, | 학년 때) |
| ③ 책제목; | (| 살, | 학년 때) |

3. 책 읽기에 대한 본인의 흥미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좋아한다. ② 좋아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관심 없는 편이다. ⑤ 아주 싫어한다.

4.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① 독서는 생활화되어야 한다. ② 독서는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된다.
③ 독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잘 모르겠다.

5.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새로운 지식/정보를 얻기 위해 ②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③ 학과 공부나 입시 공부에 도움이 되므로 ④ 책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워서
⑤ 친구들과 수준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⑥ 기타 ()

6. 다음 도서 장르 중 즐겨 읽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됨)

- ① 장편 소설 ② 단편 소설
③ 시 ④ 수필
⑤ 오락·유머 도서 ⑥ 역사도서
⑦ 과학이나 미래 세계 등에 관한 도서 ⑧ 보도·생활정보·일반교양 도서
⑨ 스포츠·음악·영화·미술 도서 ⑩ 컴퓨터 관련 도서
⑪ 교육 도서 ⑫ 경영, 경제 관련 도서
⑬ 범죄·수사·전쟁도서 ⑭ 영웅이나 위인들의 전기
⑮ 만화류
⑯ 기타 ()

7.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① 공부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 ②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 ③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④ 책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 ⑤ 책 읽는 것을 싫어한다. ⑥ 책을 사거나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 ⑦ 학교 공부와 관계없으므로 읽을 필요가 없다.
- ⑧ 기타 ()

19. 위 '18번' 문항의 책이 재미없거나 지겨웠던 이유는?

- ① 공간적 환경이 나의 환경과 동떨어져서 ② 등장인물들과 세대차가 나서
 ③ 시간적 배경이 현실감이 없어서 ④ 주제가 고리타분해서
 ⑤ 이야기의 진행 방법이 지겨워서 ⑥ 학과 공부와 상관이 없어서 시간 낭비이다.
 ⑦ 기타 ()

20. 다음 도서의 제목을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오.

책 제목	읽었다		안 읽었다			기타
	공감이 간다	공감이 안간다	들어본 적 없는 책이다	재미없을 것 같아서	관심 없는 분야이다	
거짓말쟁이와 모나리자						
그림속 나의마을						
누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가						
다이고로야, 고마워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2						
위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						
잡초는 없다						

21. 위 '20번' 문항에서 읽은 책이 있다면 그 중 가장 감동적이거나 흥미 있게 읽은 책은?

22. 위 '21번' 문항의 책이 가장 감동적이거나 흥미 있었던 이유는?

- ① 주제가 마음에 들어서 ② 시간적 배경이 현대적이고 현실감이 있어서
 ③ 공간적 배경이 되는 환경이 현실감이 있어서 ④ 이야기의 진행방법이 흥미 있어서
 ⑤ 가치관 정립이나 교양의 함양에 도움이 되어서 ⑥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되어서
 ⑦ 기타 ()

23. 위 '20번' 문항에서 읽은 책이 있다면 그 중 가장 재미없거나 지겨웠던 책은?

24. 위 '23번' 문항의 책이 재미없거나 지겨웠던 이유는?

- ① 공간적 환경이 나의 환경과 동떨어져서 ② 등장인물들과 세대차가 나서
 ③ 시간적 배경이 현실감이 없어서 ④ 주제가 고리타분해서
 ⑤ 이야기의 진행 방법이 지겨워서 ⑥ 학과 공부와 상관이 없어서 시간 낭비이다.
 ⑦ 기타 ()

25. 다음 도서의 제목을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오.

책 제목	읽었다		안 읽었다			기타
	공감이 간다	공감이 안간다	들어본 적 없는 책이다	재미없을 것 같아서	관심 없는 분야이다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전태일 평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2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2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그 때 세종이 소리친 까닭은						
대서양 문명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부록 2 : 2002년도 청소년 독서 자료 목록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2002년)>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 철학자의 돌(1,2)	36 음악가와 친구들	71 넘 재밌는 숫자의 비밀풀기
2 정바지 돌려입기	37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 향기	72 상상은 미래를 부른다
3 시인을 찾아서 2	38 내 스무살을 올린책	73 다시보는 민족과학 이야기
4 페르시아인의 편지	39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74 아름다운 바다
5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40 명문 종가를 찾아서	75 박대상의 동유럽 문화예술산책
6 중국 그 거대한 행보	41 옥스퍼드 세계의 역사	76 아이러브 뮤지컬
7 파라오의 역사	42 아버지	77 우리 그림 백가지
8 삼국유사	43 슬픔 나막신	78 창조의 수수께끼를 푼 레오나르도 다 빈치
9 삶을 가르치는 은자들	44 조각난 하얀 십자가	79 책 읽는 소리
10 행복의 발견	45 꽃그늘 아래	80 책을 배고 잠들다
11 운디네와 지식의 불	46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81 세상을 보는 눈 1.6
12 존재이야기	47 영혼의 새벽(1,2)	82 존 뮤어 자서전
13 무엇이 잘못 되었나	48 천상의 두 나라	83 무슨 나무야?
14 천안문으로 가는 길	49 문명과 야만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84 한 여름밤의 꿈
15 꿈을 이룬 대통령 루스벨트 파워 리더십	50 유라시아 천년을 가다	85 나무를 심은 사람
16 승자학	51 우리 역사속 왜	86 시련 없는 성공은 없다
17 중국인의 상술	52 장보고 시대의 해양 활동과 동 아 지중해	87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오천년 우리 과학
18 마케팅 어드벤처	53 환경철학	88 장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19 부자의 꿈을 이룬 14명의 보통 사람들	54 철학노트	89 나 혼자만의 성경(1, 2)
20 이미지 경영	55 책으로 만나는 사상가들	90 서정시가 있는 21세기 문학강의실
21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56 하룻밤에 읽는 동양 사상	91 젊은 사슴에 관한 은유
22 시기심	57 비극의 현대 지도자	92 문체로 읽는 소설
23 위대한 아웃사이드	58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93 4월 혁명과 한국문학
24 포켓속의 수학	59 두 개의 한국	94 길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25 학생을 위한 화학과 화학자 이야기	60 백만장자 이력서	95 일본 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26 로켓이야기	61 거스 히딩크, 열정으로 승부하라	96 역사에게 길을 묻다
27 기후의 반란	62 The Tools of Leadership	97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1)
28 작은 나노의 큰 세상	63 발칙한 한국학	98 학문의 진보
29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	64 손이 지배하는 세상	99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30 청소년을 위한 서양음악사	65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100 공자평전
31 어머니 품을 설계한 건축가 가우디	66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101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32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	67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102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물리의 세계(1, 2)
33 피렌체 찬가	68 21세기 일본을 디자인한다	103 깊이와 넓이 4막16장
34 프란츠 파농	69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104 미국식 사회모델
35 목숨을 건 도전 비행	70 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	105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06	하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24	책벌레	142	인간의 그늘에서
107	해성 유성 소행성	125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143	과학의 즐거움
108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126	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144	폴 하우스
109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	127	일본근세의 쇄국과 개국	145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
110	전설의 시대	128	재미있는 철학 수업(1, 2)	146	우리과학 100년
111	행복한 바보 성자 물라	129	새로운 아틀란티스	147	에필로그
112	처용이 있는 풍경	130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약동하는 자유	148	그 남자의 재즈 일기
113	걷기예찬	131	선악의 저편 · 도덕의 계보	149	얼굴- 조광호의 그림과 글
114	리처드 칼슨의 행복의 원칙	132	성서 옆에 논어 놓고 논어 옆에 성서 놓고	150	신선이 되고 싶은 화가 장승업
115	팝 아트	133	모택동과 중국을 이야기하다	151	조금은 가난해도 좋다면
116	우리 경제를 일으킨 정주영	134	대서양 문명사	152	매화
117	노루 삼촌	135	세기의 갈림길에서	153	프로이트는 요리사였다
118	불행한 사내에게 찾아 온 행복	136	월스트리트 제국	154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119	인상주의	137	경제발전과 경제윤리	155	위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
120	장애를 딛고 선 천재화가 김기창	138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156	어린이를 위한 용기를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
121	그대의 차가운 손	139	원손과 오른손	157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122	셜록 홈즈 전집(1, 2, 3, 4)	140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158	세상 모든 작가들의 문학 이야기
123	제임스 조이스(1, 2)	141	과학 혁명과 바로크 문화	159	고독하지 않은 홀로되기
				160	지렁이 카로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2002년)>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	백악관 뒷골목의 성자들	15	이불창 평전	29	과제구의 포구기행
2	영화관 옆 철학카페	16	이동인의 나라 1,2,3	30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3	앞으로 50년(The Next 50 Years)	17	네 이웃을 사랑하라	31	불의 지문
4	과학, 그 위대한 호기심	18	새롭게 읽는 한국의 신화	32	동서양 고전 읽고 쓰고 생각하기
5	그 곳에 가면 새가 있다	19	월북예술가 잊혀진 그들	33	일본사상 이야기 40
6	역사의 혼 사마천	20	한국의 마애불	34	청소년을 위한 철학자 이야기
7	끝나지 않은 전쟁	21	걷기 예찬-다비드 르 브르통 산문집	35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
8	페트라 켈리 나는 평화를 희망한다	22	바이칼	36	나의 부모님
9	조화로운 삶의 지속	2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37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10	다시 보는 민족과학 이야기	24	금속활자장	38	한국의 정원
11	도구와 기계의 원리	25	타쉬	39	멸치
12	문화유산에 담긴 우리 역사 이야기	26	슬픈 나막신	40	이웃 종교인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
13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27	우리는 너무 오래 숲을 떠나 있었다	41	길 위에서 듣는 그리스 로마 신화
14	아름다운 이야기	28	지금 그 사람 이름은	42	없는 이의 행복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43 아킬레스는 왜 거북을 이길 수 없을까?	48 전자공학@정보사회	54 영상과 시나리오
44 우리문화 길라잡이	49 생명의 느낌	55 영화 감독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45 어느 게으름뱅이의 책읽기	50 동영상으로 보는 우주의 발견	56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46 세계문명 여행	51 하늘 빛 사람들	57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47 천재 과학자들의 숨겨진 이야기	52 어느 인문학자의 나무세기	58 소금과 문명
	53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목록(2002년)>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 중한사전	31 100편의 사랑 소네트	61 매화
2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32 나의 문학 이야기	62 나는 박물관에서 인류의 꿈을 보았다
3 우리말의 수수께끼	33 김소진 전집 1~6	63 한국의 정원
4 나의 한국어 바로 쓰기 노트	34 타클라마칸	64 맹꽁이 서당 10
5 철학의 원리	35 나의 부모님	65 아기호랑이 카이참비
6 철학의 센세이션	36 아빠, 뭐해	66 목 긴 사나이
7 함석헌 다시 읽기	37 조화로운 삶의 지속	67 로망스
8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38 도스토옙스키 읽기 사전	68 어린이 경제백과 1~6
9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	39 마법의 성 오페라 이야기 1,2	69 나도 멋진 프로가 될거야 1~12
10 대지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	40 박수근	70 돌아오지 않는 제비
11 바로 이번 생애	41 연극	71 우리 좋은 창작 동화 20선
12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42 셰익스피어와 영상문화	72 인범이와 지범이
13 유럽인물열전 1,2	43 인간 부흥의 공예	73 공통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화 이야기
1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44 오늘의 미술	74 별이, 안녕
15 김포 운호가든 집에서	45 영화감독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75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6 멋진 한세상	46 뿌리깊은 한국사 · 생이 깊은 이야기 1, 2	76 TV 동화 행복한 세상 1, 2
17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1,2	47 이슬람 문명	77 우리나라 오천년 이야기 생활사
18 환상동화집	48 답사여행의 길잡이 14경남	78 돼지책
19 솔바람이 타는 악보없는 가락	49 원손과 오른손	79 그림 옷을 입은 집
20 이이화 선생님이 들려주는 만화 한국사 이야기 1~6	50 프로파간다와 여론	80 좁은 땅 넓은 바다
21 조선의 협객, 백동수	51 뉴차이나 그들의 속도로 가라	81 광고로 본 한국, 한국인
22 깡딱지	52 느린 비즈니스로 돌아가라	82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비판
23 맥도널드 아저씨의 아파트 농장	53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83 호두껍질 속의 우주
24 트라우 위인동화 1~52	54 자본주의의 이해	84 생명의 느낌
25 고양순	55 말, 권력, 지식인	85 창백한 푸른 점
26 자연의 빛 1~4	56 네트워크 혁명, 그 열림과 닫힘	86 곤충의 사생활 엿보기
27 주장현의 우리 문화 1, 2	57 청년위기	87 틀을 깬 과학자들
28 go go! 체험학습 시리즈 1~15	58 일상의 반란	88 갯벌환경과 생물
29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59 이토 히로부미	89 농굴(지성자연박물관(5))
30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	60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90 과학의 즐거움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91	다음 50년	126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161	대조영과 발해
92	아름다운 바다	127	기억들	162	독수리의 눈
93	한국사의 재조명	128	디지털 시대의 문화 읽기	163	싸우는 아이
94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129	풍경 뒤의 풍경	164	나부도감
95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책세상문고·우리세계 048)	130	가장 멀리 있는 나	165	늑대의 눈
96	한국역사의 이해 4 - 일본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다 -	131	낙타풀의 사랑	166	조커 :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97	슬픈 아일랜드	132	프랑수아 라블래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167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98	테이레시아스의 역사	133	근대영문학의 흐름	168	마쓰와 신비한 섬
99	발해·가야생활관	134	김홍재, 나는 운명을 지휘한다.	169	위대한 영혼, 간디
100	Three Days in That Autumn	135	영화 예술 입문	170	김치를 싫어하는 아이들아
101	Between Heaven and Earth	136	서양 무용비평의 역사	171	농사꾼 아이들의 노래
102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 권	137	한국 미술 2001:회화의 복권	172	미술관에 간 윌리
103	愛, 박정희 할머니의 육아일기	138	돈황	173	까치 우는 아침
104	상형의 원리로 배우는 그림 한 자	139	우리시대의 연극인	174	별뿔별 아줌마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
105	책의 운명-조선~일제 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140	허영환의 중국문화 유산기행 1, 2, 3	175	움직이는 건 뭐지?
106	정신 요법의 기본 문제	141	한국인의 숨씨	176	파차마마
107	영화 속의 철학	142	우리 삼살개	177	고구마는 맛있어
108	인지심리학	143	과학이 있는 우리 문화유산	178	푸르넷 과학도감 1~66
109	개인적 지식	144	유럽의 축제	179	정보 윤리 교육론
110	한일 근현대와 종교문화	145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180	경영관리의 위기
111	유가의 심성론과 현대 심리 철학	146	어린이를 위한 한국 현대 명화 감상	181	비전2010 한국경제
112	손중흥의 고전 문학 기행	147	I am 386c	182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113	정한모 시 전집 1, 2	148	정말 그런 인종이 있을까?	183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 시민사회 기행
114	눈물이란 무엇인가	149	숲 속에서	184	한국의 시민사회, 현실과 유토 피아 사이에서
115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	150	북경 이야기 1(우리는 바다를 보러 간다), 2(아버지의...)	185	초보자를 위한 알기 쉬운 환율 가이드
116	시인은 숲을 지킨다	151	나비가 날아간다	186	벤처산업의 미래전략
117	문학과 방언	152	조금만, 조금만 더	187	신 사회 운동의 사회학-세계적 추세와 한국
118	라틴아메리카의 문학과 사회	153	다이코로야, 고마워	188	눈으로 보는 한국 광고사
119	영미문학의 길잡이 1, 2	154	비나리 달이네 집	189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120	망탕구리 배	155	행복한 청소년	190	중앙아시아 국제 정치의 이해
121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156	똥벼락	191	알기 쉽고 새로운 기초한문 독해법
122	영국 낭만기 문학 새로 읽기 1	157	아가야, 안녕?	192	사이버 공간의 세계정치
123	언론 정보 윤리론	158	날아라 새들아	193	아인슈타인
124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159	경도	194	과학이 세계관을 바꾼다
125	강박사의 초과학 산책(상, 하)	160	테크놀로지 마음대로 부리기	195	아주 느린 시간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96	호네로소에서 돈키호테까지	198	중세이야기	200	스무난 동안의 황토 기행
197	그래도 역사의 힘을 믿는다	199	철저 비판 일본 우익의 역사관 과 이데올로기	201	Korean Studies Series No 4. MYTHS OF KOREA

<시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2002)>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	과학 혁명과 바로크 문화	32	다시 읽는 이솝우화	63	위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
2	과학의 발견	33	다이교로야 고마워	64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3	민족 과학의 뿌리를 찾아서	34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65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
4	세계의 과학자 18	35	동과 서의 차이이야기	66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5	식물은 왜 바흐를 좋아할까	36	리처드 칼슨의 행복의 원칙	67	인도의 신화
6	신갈나무 투쟁기	37	명작 속으로 떠나는 사고 여행	68	인디언 숲으로 가다
7	신나는 물리실험	38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69	인생은 지나간다
8	아빠, 별자리 보러가요	39	무엇을 어떻게 쓸까	70	작은 이야기 1,2
9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과학이야기	40	별이 총총한 하늘아래 약동하는 자유	71	잡초는 없다
10	야! 가자 남극으로	41	봉선화에 부치는 고백	72	재미있는 철학 수업 1 - 2
11	우리과학 100년	42	쁘띠 철학	73	전설의 시대
1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곤충 백가지	43	사람 사이에 삶의 길이 있고	74	창가의 토토
13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 교실	44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75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14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	45	삶이 괴로워서 음악을 듣는다.	76	프로이트는 요리사였다
15	21세기 일본을 디자인 한다	46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77	하느님 개구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거짓말쟁이와 모나리자	47	새로운 아틀란티스	78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17	겉기예찬	48	선악의 저편	79	행복한 바보 성자 몰라
18	경제발전과 경제윤리	49	세계 미술사 박물관	80	49일간의 비밀
19	공자평전	50	세계의 지성 28인의 편지	81	4월 혁명과 한국문학
20	국어시간에 수필 읽기 1	51	세상 모든 꿈을 꾸는 이들에게	82	가던 새 본다
21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	52	솔빛별 가족 세계 여행기	83	가출일기
22	그림 속 나의 마을	53	수학귀신	84	거짓말쟁이와 모나리자
23	꿈을 향해 뛰어라	54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85	국어시간에 소설 읽기 1~2
24	나는 고말한다	55	시의 길을 여는 새벽 별 하나	86	국어시간에 시 읽기
25	느낌이 있는 그림이야기	56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87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6	내 안의 자유	57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88	그대의 차가운손
27	내 멋대로 해라	58	심형래의 진짜 신나는 도전	89	그리운 베이 아줌마
28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59	어머니의 노래	90	급류 속의 구출 작전
29	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	60	예술의 숲	91	꼬마 나폴라 시리즈
30	누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우는가	61	오체 불만족	92	나 이제 외톨이와 안녕할지 몰라요
31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62	우울과 몽상	93	끝없는 이야기1-3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94	꼬마 이방인	130	스물 네 개의 눈동자	167	내 인생을 바꾼 스무살 여행
95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131	시월의 하늘 1-2	168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
96	나는 아름답다	132	아름다운 고향	169	한티개 하늘 1, 2
97	나를 있게 한 모든 것들	133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170	할 말이 많아요
98	내 남자친구 이야기 / 내 여자 친구 이야기	134	아스펜 산적의 미스터리	171	할아버지 요강
99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135	설록 홈즈 전집 1 - 4	172	해와 같이 달과 같이
100	나의 산에서	136	아홉살 인생	173	행복이 찾아오면 의자를 내주세요
101	나 혼자만의 성경 1 - 2	137	압록강은 흐른다 상하	174	호밀밭의 파수꾼
102	나무를 심은 사람	138	앞집에 살던 친구 베렐레	175	희망의 이유
103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139	어느 전쟁 영웅의 당연한 죽음	176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104	내 이름은 디니	140	어린 왕자	177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105	내가 어렸을 때에	141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178	그때 세종이 소리친 꺼닭은
106	농구화	142	엄마 냄새	179	길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107	다리 건너 저편에	143	오이 대왕	180	내 기억 속의 조선
108	달빛 노래	144	우리는 영혼을 팔지 않았다	181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이야기
109	당나귀 귀	145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82	대서양 문명사
110	돌다리	146	우리들의 하느님	183	모택동과 중국을 이야기 하다
111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147	이삿언니	184	반 고흐
112	땅에 그리는 무지개	148	이상한 나라의 리씨	185	발칙한 한국학
113	똥 누고 가는 새	149	자전거 도둑	186	사건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 1-3
114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	150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	187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15	라몬의 바다	151	재미나는 인생	188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
116	로베르트 너 어디 있었니?	152	젊은 사슴에 관한 은유	189	세기의 갈림길에서
117	메아리	153	점득이네	190	소설로 읽는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118	모기	154	차에 치인 개	191	안녕하세요, 벨 박사님
119	모모	155	책벌레	192	역사신문 1-6
120	몽실 언니	156	천둥치는 밤	193	역사에게 길을 묻다
121	물총새 이야기	157	천사표 우리 엄마	194	우리 역사속 왜
122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158	초가집이 있던 마을	195	이야기 한국역사 1-13
123	밥이 쪼는 시간	159	춤추는 노예들	196	이슈로 본 한국현대사
124	새	160	코끼리를 찾아서	197	일본 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125	새의 선물	161	크라바트	198	장준하
126	선생님의 밥그릇	162	크윅케	199	전태일 평전
127	아칸소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163	태양의 아이	200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128	소나기	164	파도 타는 소년	201	한국 생활사 박물관 1-7
129	손도끼	165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202	한국사 뒤편 이야기
		166	푸른 돌고래 섬	203	뿌리 깊은 한국사 생이 깊은 이야기 1-2

<시립도서관 도서관 주관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2002)>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	49일간의 비밀	37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73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 시민사회 기행
2	가던 새 본다	38	나의 산에서	74	민족 과학의 뿌리를 찾아서
3	가장 멀리 있는 나	39	낙타풀의 사랑	75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4	가출일기	40	날아라 새들아	76	바닷가 생물
5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41	남아 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77	미켈란젤로의 딸
6	강박사의 초과학 산책 (상 - 하)	42	내 남자 친구 이야기	78	밥이 끓는 시간
7	개인의 죽음	43	내 여자 친구 이야기	79	봄바람
8	개인적 지식	44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80	불멸의 춘향전
9	거짓말쟁이와 모나리자	45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81	빈산에 노랑꽃
10	걸리버 여행기	46	농구화	82	사랑이 통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
11	고려 500년, 의문과 진실	47	누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가	83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 2)	48	눈물이란 무엇인가	84	새
13	고려의 황도 개경	49	눈보라	85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 - 2)
14	고흐의 집을 아시나요?	50	다큐멘터리 소설 명성황후	86	새의 선물
15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	51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87	생각의 정복자들
16	과학의 즐거움	52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88	생각하는 아이를 위한 철학동화
17	과학이 세계관을 바꾼다	53	대서양 문명사	89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18	과학이 있는 우리문화유산	54	대중과 과학기술	90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이야기 (1 - 3)
19	괴테의 여우 라이네케	55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91	생명이야기
20	교과서 속 세계인물 100	56	돌다리	92	서양 연극사 이야기
21	구렁이들의 집	57	모든 신 포도 밑에는 여우가 있다	93	선생님의 밥그릇
22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58	땅에 그리는 무지개	94	세계의 창조신화
23	국어시간에 소설읽기 (1 - 2)	59	리눅스 그냥 재미로	95	세상과 사람사이
24	그 때 세종이 소리친 까닭은	60	마이너리그	96	생명의 느낌
25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61	멀리 가는 길	97	세상을 보는 눈 (1 - 2)
26	그대의 차가운 손	62	명탕구리 배	98	셜록 홈즈 전집 (1 - 4)
27	그리운 메이 아줌마	63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99	소년의 노래
28	김홍재, 나는 운명을 지휘한다	64	디지털 시대의 문화 읽기	100	소크라테스 카페
29	깊고 넓게 생각하기	65	모래말 아이들	101	슈퍼터
30	꼬마 이방인	66	목수 아버지	102	스무날 동안의 황토 기행
31	나 이제 외톨이와 안영할지 몰라요	67	몽실 언니	103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32	나는 아름답다	68	문화 속에 미래가 있다	104	슬픈 시간의 기억
33	나는 왜 역사가가 되었나	69	문화가 중요하다	105	시 읽는 기쁨
34	나도 타고르고 싶다	70	문화민주주의	106	시가 내게로 왔다
35	나르시스의 꿈	71	물총새 이야기	107	신돌석: 백년 만의 귀향
36	나무신부님과 누에성자	72	미란	108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09	아름다운 고향	136	이원복 교수의 세계기행	163	청소년 문학상 작품집 (제10회)
110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137	이유기가 건너는 강	164	청소년을 위한 철학자 이야기
111	아인슈타인	138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165	초가집이 있던 마을
112	아주 느린 시간	139	잊혀지는 것과 되살아 나는 것	166	축제로의 여행
113	아하! 그뻔 이렇게 살았군요	140	이타적 유전자	167	춘아 춘아 옥단춘아 네 아버지 어디 갔니?
114	아홉살 인생	141	인간의 아름다운 친구들	168	갈의 노래 (1 - 2)
115	알도와 떠도는 사원 (상- 하)	142	자연과학의 역사	169	코끼리와 버룩
116	알록강은 흐른다 (상 - 하)	143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170	클래식 오딧세이
117	애수에서 글래디에이터까지	144	자전거 도둑	171	테크놀로지 마음대로 부리기
118	야윈 짓가슴	145	잡초는 없다	172	판타지 동화세계
119	어느 전쟁 영웅의 당연한 죽음	146	장보고 시대	173	플라톤은 아팠다
120	어두워진다는 것	147	장원의 심부름꾼 소년	174	피렌체 르네상스
121	얼굴- 조광호의 그림과 글	148	재미나는 인생	175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
122	에필로그	149	점득이네	176	한국미술, 그 분출하는 생명력
123	영화 속의 철학	150	정원 일의 즐거움	177	한국의 시민사회, 현실과 유토피아 사이에서
124	예술가로 산다는 것	151	젖은 손으로 돌아 보라	178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125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152	제임스 조이스 (1 - 2)	179	한국인의 숨씨
126	우렁이 속 같은 세상	153	조각이란 무엇인가	180	호메로스에서 돈키호테까지
127	우리 미술 100년	154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 2)	181	한타재 하느 (1 - 2)
128	우리과학 100년	155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182	행복수첩 (1 - 2)
129	우리들의 하느님	156	주구점의 북경인 (1 - 2)	183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
130	우리말글 바로 알고 옳게 쓰자	157	즐거운 문학수업	184	한자의 뿌리 (1 - 2)
131	우리말보다 쉬운 영어동사	158	지명으로 보는 세계사	185	호밀밭의 파수꾼
132	우리방송 100년	159	차에 치인 개	186	희망의 이유
133	위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	160	착한미개인 동양의 현자	187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134	이상한 나라의 리씨	161	책벌레	188	N세대를 위한 유교철학에세이
135	이슬람	162	첨단기기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어린이도서연구회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2002년도)>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	가출일기	7	몽실 언니	13	선생님밥그릇
2	국어시간에 소설 읽기 1. 2	8	물총새 이야기	14	소나기
3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9	밥이 끓는 시간	15	아름다운 고향
4	농구화	10	봄바람	16	아홉살 인생
5	돌다리	11	봄봄	17	알록강은 흐른다 (상, 하)
6	땅에 그리는 무지개	12	새	18	자전거 도둑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9	점득이네	55	신갈나무 투쟁기	91	49일간의 비밀
20	초가집이 있던 마을	56	춤추는 물고기	92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21	해와 같이 달과 같이	57	아빠, 별자리 보러가요	93	인생은 지나간다
22	우리가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 그러나 하이틴 로맨스에도 포르노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	58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과학이야기	94	창가의 토토
23	저릿말쟁이와 모나리자	59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교실	95	포르노 All boys do it!
24	그리운 메이 아줌마	60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	96	민족 과학의 뿌리를 찾아서
25	그림 속 나의 마을	61	반고흐	97	차에 치인 개
26	꼬마 니콜라 시리즈	62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 1-3	98	호말밭의 파수꾼
27	끝없는 이야기 1-3	63	소설로 읽는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99	희망의 이유
28	누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가	64	한국 생활사 박물관 1-5	100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2
29	나를 있게 한 모든 것들	65	안녕하세요, 벨 박사님	101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30	나무를 심은 사람	66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102	불멸의 춘향전
31	나 이제 외톨이와 안녕할지 몰라요	67	이야기 한국역사 1-13	103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2
32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68	다이고로야, 고마워	104	하느님 개구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3	로베르트 너 어디 있었니?	69	무엇을 어떻게 쓸까	105	나는 고발한다
34	메아리	70	봉선화에 부치는 고백	106	역사신문 1-6
35	모모	71	달빛 노래	107	네 멋대로 해라
36	천둥치는 밤	72	당나귀 귀	108	다시 읽는 이솝우화
37	천사표 우리엄마	73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109	수학귀신
38	춤추는 노예들	74	라몬의 바다	110	사람 사이에 삶의 길이 있고
39	크라바트	75	우리는 영혼을 팔지 않았다	111	시의 길을 여는 새벽 별 하나
40	크윽케	76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	112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41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77	시월의 하늘 1, 2	113	세계의 지성 28인의 편지
42	파도 타는 소년	78	어린 왕자	114	세상 모든 꿈을 꾸는 이들에게
43	푸른 돌고래 섬	79	아칸소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115	장준하
44	할 말이 많아요	80	앞집에 살던 친구 베렐레	116	진태일 평전
45	행복이 찾아오면 의자를 내 주세요	81	아버지 당신도 어머니가 그림습니까	117	한국사 뒷 이야기
46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82	내 남자친구 이야기/내 여자친구 이야기	118	국어시간에 수필 읽기
47	똥 누고 가는 새	83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119	게임
48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84	내 이름은 디니	120	가던 새 본다
49	할아버지 요강	85	다리 건너 저편에	121	나는 아름답다
50	과학의 발견	86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	122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51	뱀	87	나의 산에서	123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52	벌레가 벌레벌렁	88	어머니의 노래	124	새의 선물
53	식물은 왜 바호를 좋아할까	89	오채 불만족	125	우리들의 하느님
54	신나는 물리 실험	90	국어시간에 시 읽기	126	재미나는 인생

	도 서 명		도 서 명		도 서 명
127	한티재 하늘 1, 2	131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2	135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128	꼬마 이방인	132	그 때 세종이 소리친 까닭은	136	아름다운 삶 그리고 마무리
129	어느 전쟁 영웅의 당연한 죽음	133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137	잡초는 없다
130	이상한 나라의 리씨	134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138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